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 분단소설 교육 연구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하 가 림

# 하가림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4년 8월

주 심 문학박사 남 송 우



위 원 문학박사 송 명 희



위 원 문학박사 조 동 구



# <차 례>

<영문초록> .....	iii
<b>I. 서론</b> .....	<b>1</b>
1. 연구목적 .....	1
2.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 .....	3
<b>II. 분단소설의 개념</b> .....	<b>8</b>
1. 분단소설의 개념 .....	8
2. 분단소설의 전개 양상 .....	15
<b>III. 분단소설의 교육적 의의</b> .....	<b>22</b>
1. 분단소설의 교육론적 접근 .....	23
2. 7차 교육과정과 통일 문학론 .....	26
<b>IV. 교과서 분단소설의 현황과 분석</b> .....	<b>28</b>
1. 교과서 분단소설의 수록 현황과 문제점 .....	28
1.1. 6차 교육과정 교과서 수록 현황 .....	29
1.2. 7차 교육과정 교과서 수록 현황 .....	31
1.3. 교과서 분단소설의 유형 .....	35
1.4. 교과서 분단소설 수록 현황의 문제점 .....	39
2. 교과서 분단소설의 분석과 문제점 .....	41
2.1. 교과서 분단소설 분석 .....	42
2.1.1. 「비 오는 날」 .....	42
2.1.2. 「병신과 머저리」 .....	46
2.1.3. 「나무들 비탈에 서다」 .....	50
2.1.4.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 .....	54

2.1.5. 「엄마의 말뚝2」 .....	56
2.1.6.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	61
2.1.7. 「어둠의 혼」 .....	64
2.1.8. 「나무」 .....	70
2.2. 교과서 분단소설의 문제점 .....	73
<b>V. 교과서 분단소설 교육의 방향</b> .....	<b>76</b>
<b>VI. 결론</b> .....	<b>86</b>
<참고문헌> .....	89

## <표 차례>

<표 1> 6차 교육과정 18종 『문학』 교과서 수록 분단소설 .....	29
<표 2> 6차 분단소설 작품별 수록 횟수 .....	30
<표 3> 7차 교육과정 18종 『문학』 교과서 수록 분단소설 .....	31
<표 4> 7차 분단소설 작품별 수록 횟수 .....	33

# A Study on the Education of the Korean Novels on National Division-based on the High School Literary Textbook

Ka-Rim Ha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certifies the need for the Education of the Division by focusing on "the Korean Novels on National Division" in the education of highschool literature, and seeks plans to search sincere and lucid cognition through literature classes and literary textbooks

As the Division itself is the current reality of Korea, the contents or subjects of the Division novels which are included in the textbooks clearly influence the students' recognition and willingness of overcoming the Division.

Therefore, we've looked into current situation listed in highschool literary books revised by the 7th curriculum, and also analyzed some of literary works in the 1960s which contain the pain of division and the stern will to overcome it.

So, we've ascertained several problems with regard to these literary works.

First, students don't have any chance to appreciate entire works which are even short stories because literary books contain part of them.

Second, students are not able to have good help from comment about works because it is vague and can't give various and instructive learning activities for goals of learning and contents of literary works.

Third, although works, which are listed in literary books, have to be used for us to understand overall lives of learners, not to simply convey some of information, most of them are still likely to choose analyzing literary works in preference to inducing appreciation of them.

Forth, owing to the bias of writers and works, there are problems related to the goal of literary education that is overall appreciation of mankind and lives.

We've paid keen attention to the way to solve these problems related to division novel, and to choose and contain it in the highschool literary books.

First, although they were regarded as good works in the past, those novels

have to be reappraised stringently from today's point of view.

Second, result of examining contents of literary text books have found that comments of works are vague and lackadaisically written.

So, we need apposite verification tools of comment of literary text books which is not helpful for appropriate appreciation of works.

Third, at present ,there is little of North Korea literature in highschool literary books. If it is included in literary books, it is helpful for students to understand North Korea. So through objective assesment we need to have enough space for North Korea literature and have to have a great interest in it.

Forth, because students' cognition may change according to how novels deal with Division problems and how these novels are included in literary text books, works which are included in this particular category of division have to well represent history and situation of division on the assumption of historical cognition with which division novels can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reason why division occurred, and also describe people's lives in that situation with utter candor to solve this problem.

Fifth, we need to discuss how to list the new division nobles on literary text books which have to include the stern will to overcome division with the mission of cure and solution for division under the affinity relation that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re blood given, not to seek just emotional solution.

Sixth, it is better for teachers and students to have enough time to choose works which include various views about division problems, read them carefully, ponder how to solve these problems, than just to appreciate and understand novels on the basis of comment of literary works on text books.

Through these ways and literary works, learners can internalize peaceful unification as pressing problem, and have practical awareness of overcoming division and anticipating unification.

# I. 서론

## 1. 연구목적

소설은 인물과 인물이 어울려 사회 내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나가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장르이다.<sup>1)</sup> 논리적인 시선으로 포착할 수 없는 인간의 삶에 대한 진상을 구체적인 인간 행위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삶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소설은 이처럼 구체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과 삶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순수예술적인 미의 추구에서 벗어나 역사와 현실에 대한 작가의 의식을 우위에 두는 양상을 띠게 된다.

우리는 광복 이후 강대국의 국토 분할과 함께 상이한 이념을 가진 두 개의 정치 체제가 양립되었으며 동족간의 내분과 전쟁으로 이어져 엄청난 비극을 낳았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민족의 비극적인 현실이다.

분단 이후 우리 문학은 민족분단의 모순과 극복, 통일실현이라는 문제에 대해 한번이라도 무관심했던 적이 없었다. 분단은 우리 문학의 가장 중요한 소재로써 ‘분단문학<sup>2)</sup>’이라는 장르를 형성할 정도로 우리 소설사의 커다

---

1)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01, 304면.

2) ‘분단문학’이라는 용어에 대해 기존의 개념규정은 분명치 않다. 경우에 따라서 비슷한 뜻으로 전후소설, 전쟁문학, 50년대 문학, 이산문학, 6.25문학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

란 흐름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분단문제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현재형 사건이므로 엄격하게 규정지을 수 없으며 방대한 분단소설의 분량으로도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다. 또한 전쟁을 체험하지 않은 전후 세대에게는 분단의 비극이나 통일은 직접적일 수 없다. 그들에게 통일은 당연한, 절실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특별한 계기 없이는 공감하기가 힘들다. 분단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남북한의 민족적 동질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흐려지고 분단 자체를 당연시하게 되는 경향도 생기게 됨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분단된 이후 남한 사회는 ‘반공’을 중요한 국가 이데올로기<sup>3)</sup>로 반민주적 사회체제를 유지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학교 교육 또한 예외일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남북 대결 구도가 아닌 화해 구도로 통일 국가 건설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시점<sup>4)</sup>에서 가장 먼저 변화해야 할 영역이 교육 분야이며 실로 교육의 역할은 대단하다. 특히 문학교육에 있어서 소설교육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분단 상황은 편파적인 이데올로기를 동원해 우리의 세계 인식을 왜곡시켜 현재 상황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소

---

는데 본고에서는 분단 소재의 영역을 넘어 분단 극복의지를 갖는 것을 칭한다. 분단 문학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규정은 본고 「분단문학의 개념」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 3) 반공이데올로기는 이승만 정권에 의해 전후의 혼란한 민심을 수습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미명아래 널리 유포된 이래 과거 정권들은 분단된 현실과 북한의 호전성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세뇌시키면서 혹 아니면 백이라는 극단의 양가치적 사고를 확산시킨다.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 가차없이 빨갱이로 몰아붙였고 심지어 공교육에서는 반공을 국시로 삼아 국민의 무의식까지 통제하였다. (강진호, 『탈분단 시대의 문학논리』, 새미, 2001, 89면-90면.)
- 4) 남북관계 발전 노력으로 1970년대 초 남북대화 시작 이래 정부는 점진적·단계적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입장에서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대북정책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통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통일부, 『통일 교육 기본 지침서』, 통일정책부, 2003.)

설은 이런 억압적인 현실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인식에 작은 파열구를 내며 세계의 진실을 보여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 낼 수 있는 것<sup>5)</sup>이다.

이처럼 민족과 국토의 분단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깊이 있게 인식하고, 그 역사적 조건의 극복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데 문학의 역할이 컸음을 인정한다면,<sup>6)</sup> 우리 소설 교육 또한 분단 의식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었는지 지금까지 분단 문제에 대해서 더 나아가 분단 극복에 대한 우리의 교육적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분단소설을 검토함으로써 분단을 극복하고, 학습자가 삶의 진실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태도를 기르게 하는 소설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2.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

소설교육과 사회·문화적 현상들을 관련지어 연구하는 실천적 작업들이 교육계 안팎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특히 교사 운동이 부활한 시점인 1980년대부터 교육 개혁을 위한 실천적 방안들이 모색되기 시작한다. 정체되어 있는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문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련의 주장과 노력은 문학교육에 활력을 불어넣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장 교사들이 주축

---

5) 엄정미, 「분단시대의 소설 교육-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 논문, 2001. 2면.

6)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3, 21면.

이 되어 국어교육에 관한 실제적 연구들을 수행하면서<sup>7)</sup> 열린 교육을 지향해 가는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어 국어교육과 문학교육의 개선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특히 분단이라는 역사적 상황인식 위에 우리의 삶을 진지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문학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분단극복과 통일지향의 문학교육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문학사 및 문학비평의 차원에서 분단소설에 관한 연구는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개혁적인 교육 운동이 전개되면서 분단시대의 학교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되었지만, 문학 교육적 차원에서 분단과 통일에 관한 연구는 최근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최근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분단소설 작품을 비판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로는 양승은, 김학순, 엄정미, 김학묵, 이정현의 논문이 있다.

양승은<sup>8)</sup>은 현대 소설사 중 분단소설 형성에 가장 결정적인 작용을 한 50년대에 대한 이해와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50년대 작품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김학순<sup>9)</sup>은 분단을 다룬 교과서 소재 분단소설의 주제를 유형화하고, 그것이 학생들의 분단 극복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한다. 그러나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분단소설은 학생들의 분단 극복 의식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 그치고 있다. 이들의 논문은 분단문제를 소설 교육현장에 끌어들여 비판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한 것에는 의의가 있으나, 문학계의 분단문학론을 중심에 놓고 문학 교과서 안의 작품

7)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국어교육을 위한 교사모임의 『교과교육』(1988년 창간), 『통일을 여는 국어교육』(1989년 창간), 전국 국어교사모임의 『함께 여는 국어교육』이 계간으로 발행되기 시작했다.

8) 양승은, 「고등학교 소설교육에 관한 연구:195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상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9) 김학순, 「문학 교과서 소재의 분단소설 고찰」, 충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을 분석하는 평면적인 연구에 그쳤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분단소설의 지향점을 제시하면서 『문학』 교과서에 실린 분단소설의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엄정미<sup>10)</sup>는 문학 교과서 분단소설 수록 양상과 학습내용 구성을 살피고 특히 분단의식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소설교육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분단시대의 학교교육과 현행소설 교육 전반에 대한 비판을 하며 분단 극복을 위한 소설 교육의 방향성을 검토하는 등 기존의 내용들과는 달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소설교육의 방향 전환을 위해 현시점에서 필요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

김학목<sup>11)</sup>은 통일교육과 소설교육의 상관관계를 중심에 두고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분단소설의 학습내용과 구성을 살펴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을 비판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각 작품의 학습목표에 대한 논의에만 그치고 있다.

이정현<sup>12)</sup>은 분단소설 교육의 의의 및 필요성을 확인하여 분단소설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앞의 모든 논의들은 6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 교과서의 분단소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설교육이 자리 잡고 있는 환경으로서 분단 상황에 주목하여,

---

10) 엄정미, 「분단시대의 소설교육: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11) 김학목, 「문학교육에서의 분단소설 연구: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단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12) 이정현, 「분단소설 교육론」, 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분단소설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고등학교 문학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분단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소설교육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7차 교육과정에 따른 18종 『문학』 교과서를 대상으로 분단소설 작품 수록 양상과 내용 구성이 6차 교육과정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바람직하게 발전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특히, 60년대 이후부터 분단을 인식하는 본 제도에 올랐다고 생각<sup>13)</sup>하므로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60년대 이후의 분단소설에 보다 더 주목할 것이다.

제 II장과 제 III장에서는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분단소설을 분석하기에 앞서 분단문학의 개념을 정확하게 짚어보고, 분단문학의 교육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IV상에서는 6차와 7차 교육과정에 의해 수록된 분단소설의 양상을 비교해보고, 새로 개정된 7차 교육과정의 18종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서 분단소설을 선별하여 작품을 주제별로 유형화하여 살펴볼 것이다. 특히 분단 극복 의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들을 위주로 학습목표와 학습활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비판적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교과서 수록 현황과 교과서 수록 분단소설의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이것을 토대로 제 V장에서는 교과서 수록 분단소설의 문제 해결 방향과 분단소설 작품 선정과 교과서 수록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학습자는 통일교육 과정에서 분단소설을 이해하고 스스로 교과서 문학작품의 분단소설을 통해 분단 인식, 분단 극복의지, 통일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6차 교육과정까지의 『문학』 교과서 수록 분단소설에 대한 작품선정, 내용, 구성 등에 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다. 7차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문학교육의 목표와 내용

13) 유입하, 「현대 한국소설의 분단인식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1996.

을 분석하고 분단 의식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서 소설교육의 발전적인 방향을 살펴 7차 교육과정의 『문학』 교과서는 어떠한 발전과 변모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고 『문학』 교과서 소재 분단소설의 지향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분단소설을 유형화하고 개별 작품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학습자들에게 각각의 작품들이 어떠한 의미들을 지니게 되며, 분단 극복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지 살펴 볼 것이다. 기존의 많은 논의들이 50, 60년대 작품에 중점을 두고 비판적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90년대 작품까지 범위를 확대시켜 60년대 이후의 분단소설들이 분단의식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연구해보기로 한다.

## II. 분단문학의 개념

양과 질적인 면에서 어떤 경향의 소설보다 압도적인 분단 상황과 관련된 소설은 그 시대와 연구 성향에 따라 몇 가지 양상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명칭도 각각 다르다. 그 개념들이 분단소설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되고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소설 중 분단과 관련된 소설을 분석할 때, 이러한 작품을 부르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 1. 분단문학의 개념

분단문학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인 내포를 갖고 문학사에 정착하게 된 것은 70년대 이후이다. 이 때를 기점으로 분단문학이라는 말이 내실을 갖춘 용어로 널리 통용되기 시작했다.<sup>14)</sup>

첫째, 전쟁문학이라는 개념이 있다. 오현봉은 전쟁문학의 공간을 전장에서부터 한 인간의 내면세계까지로 삼고, 시간대를 전시에서 종전 직전까지로 하여, 선전 혹은 대항 선전을 작품 창작의 주동기로 삼는 문학양식이라고

14) 강진호, 「분단에 대한 자각과 주체적 극복 의지-1970년대 분단소설에 대해서」, 『탈분단 시대의 문학논리』, 새미, 2001, 106면.

규정<sup>15)</sup>하고 있다. 전쟁문학이 지향하는 입장을 전쟁을 찬성하는 입장과 비판·고발하는 입장으로 요약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쟁문학이라는 용어는 매우 한정적이다.

둘째, 전후소설이라는 개념은 6.25와 관련된 소설의 연구 경향 중 가장 두드러지며 1950년대의 소설을 분석하는 주된 틀을 형성한다.<sup>16)</sup> 우선적으로 전후문학<sup>17)</sup> 혹은 전후파 문학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전후문학 또는 전후파 문학은 아프레게르<sup>18)</sup>의 경향이나 사조를 띤 문학을 일컫는다.<sup>19)</sup> 6.25 전쟁 이후 현실에 대한 작가의 인식 태도와 세계 문예사조적인 영향 아래 배태된 소위 전후 소설론은 1950년대 한국 소설을 세대론적 관점인 신세대론과 함께 전후 프랑스 문학에서 비롯된 실존주의적 관점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개념<sup>20)</sup>으로 서구에선 세계 대전 이후를 뜻하므로 개념상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다만 50년대 이후 문학 연구자들이 50년대의 한국 문학적 특성과 시대적 상황을 가리키는 편의상의 술어로 전후문학을 동원했고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참신한 문학적 기교 때문에 독자들을 매료시키는 데도 이 단어가 도움이 되었으며, 언론매체에서도 예외 없이 이 용

15) 오현봉 「한국전쟁문학의 연구」, 『한국현대문학의 사회학적 시고』, 형설출판사, 1990, 233-234면.

16) 심정민, 「분단소설의 변모 양상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1994, 8면.

17) 신경득의 정의에 따르면 전후문학은 서구의 문예사조에 영향을 받은 전쟁 후에 새로이 등장한 신세대 작가에 의한 문학에 한정되며, ‘한국전후의 상황과 부조리에서 온 허무주의와 불안’을 근간으로 하며, 1950년부터 1960년 4.19혁명 후까지의 10 여년 간의 문학을 말한다. (신경득, 『한국 전후소설 연구』, 일지사, 1983.)  
구인환은 전후문학은 1950년대 문학으로서 50년대의 문학적 공간으로서 특징을 지니면서 한국현대문학의 통시적 축의 한 층위를 이룬다. (구인환, 『한국 전후문학 연구』, 삼지원, 1996.)

18) 아프레게르(apres-guerre)란 제 2차 세계 대전 후 전전(戰前)의 사상·도덕·관습에 구속됨이 없이 행동하는 경향 또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

19) 실진구, 「윤홍길 분단소설 연구: 화자의 서술적 입장과 세계인식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석사 논문, 2003.

20) 심정민, 위의 논문 5면.

어가 통용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sup>21)</sup>

셋째, 이산문학이라는 용어도 있다. 이산문학이란 민족사적 불행인 이산가족의 비극을 형상화한 작품이며 분단이나 전쟁에 의한 가족의 비극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이산이라는 문제는 분단 문제를 떠나서도 성립<sup>22)</sup>될 수 있으며, 용어 자체에서 한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넷째, 6.25문학이라는 용어는 6.25가 분단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해석하게 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또한 6.25문학은 6.25의 역사적 의미를 풀이하는 수준에 머물게 될 위험이 있다. 분단 고착화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 6.25 전쟁을 중심에 놓으면 6.25 전쟁문학, 전후문학이 곧 분단 문학이라는 관점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김승환<sup>23)</sup>은 6.25문학이라는 용어가 분단 문학과 대등하게 쓰이고 있는 현상에 대해 분단의 본질과 6.25 전쟁이라는 현상 사이의 차이를 변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6.25 전쟁은 그 상황 변화에 의해서 거대한 비극으로 역사에 실재한 사건일 뿐이므로 분단 상황을 반영하는 문학을 통칭하는 용어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상에서 살펴 본 모든 개념들은 분단시대의 모든 문학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한정적인 개념들이며, 다분히 소재주의적이고 본질과 근원을 간과한 채 한국전쟁이라는 현상에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므로 인해 생겨난 명칭들이라고 할 수 있다.

임현영은 이러한 한정된 개념들을 극복하기 위해 분단문학이라는 개념에 접근하는 방법을 다양화시키고 있다<sup>24)</sup>. 분단문학의 개념을 광의의 개념과

---

21) 임현영, 「분단시대 문학론고」, 『민족의 상황과 문학사상』, 한길사, 1986. 202면.

22) 장용준, 「6월의 수기」, 『한국문학』, 1985, 6, 144면.

23) 김승환신범순 공편, 「분단 문학과 분단 시대」, 『분단문학 비평』, 청하, 1987.

24) 임현영은 올바른 분단문학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구성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전제를 따른다. 첫째, 투철한 민족적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 둘째, 독재 권력을 옹호하는 자세

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설정하고 있다.

넓은 뜻에서의 분단문학이란 분단시대의 모든 문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곧 1945년 8월 15일 이후 오늘날은 물론 앞으로 우리 민족이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남북한 모든 문학을 '분단문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sup>25)</sup>

수 광의의 분단문학 개념은 '분단시대의 문학'으로 규정하고 이 시대에 만들어진 모든 문학 작품을 포괄한다는 것으로 북한 문학 활동도 지칭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이 개념은 분단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은 작품들까지 모두 포괄한다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

좁은 뜻에서의 분단문학이란 분단으로 빚어진 민족의 모든 갈등과 모순을 파헤치면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민중들의 삶과 사상과 정서를 담은 작품이나 그와 관련된 모든 문학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분단문학이란 8.15 뒤 분단시기의 우리 민족이 겪는 모든 갈등과 고뇌를 극복하고자 올바른 민족의식에 입각해서 창조하는 일체의 문학행위라고 할 수 있다.<sup>26)</sup>

김승환은 분단문학의 개념에 의한 분단문학의 갈래를 두 가지 시각으로 보고 있다. 분단문학은 연속적 문학관에 근거하여 대 사회적 효용성을 강조하는 교훈주의 시각과 불연속적 문학관에 근거하여 문학의 초월적 성격을 강조하는 예술지상주의 시각이다.

---

로서는 분단극복은 어렵다. 셋째, 이념적 경직성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넷째,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분단의 근본원인으로 외세의 부당한 작용, 민족 내부의 독재권력 세력,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적 대립으로 축약시켜 분단문학이란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라고 제시한다. (임현영, 『분단시대의 분단문학』, 태학사, 1992, 223면.)

25) 임현영, 『분단시대의 분단문학』, 태학사, 1992, 221면.

26) 임현영, 위의 책, 221-222면.

분단문학을 가르는 기준은 분단 상황이 삶을 구속하고 현실의 모든 갈등을 만들어 내는 절대적인 모순임을 전제하고, 문학은 그런 모순을 증언하는 한편 살살이 들추어내며 나아가 분단극복의식을 독자에게 고양시키고 통일된 민족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해야 한다는 민족사의 가치지향이다.<sup>27)</sup>

즉, 분단문학은 분단극복문학<sup>28)</sup>임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분단 상황을 철저하게 표현하는 것과 분단 극복에 기여하는 것은 처음부터 갈래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분단 상황을 철저하게 문학화하여 결과적으로 분단극복에 기여했다 하여도 원론적으로 다른 문학관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 폄하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보고 있다.<sup>29)</sup> 이에 이철호<sup>30)</sup>는 ‘철저한 표현과’ ‘극복의지’를 전혀 다른 토대의 문학관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으며 동일한 작가에 의한 두 가지 경향이 함께 장작할 수 있다는 것을 놓친다고 제기한다. 이와 같이 분단문학을 사회적 효용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측면에 반하여 초월적 성격을 강조하는 예술 지상주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문학은 그 독자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작가는 오로지 문학의 절대성만을 선봉하는 밀교의 사제이기에, 분단이라는 주제를 선택했다 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분단은 여러 가지 주제 중의 하나일 뿐이고 그러기에 분단문제를 작품화할 때에도 다른 주제를 선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예술성과 심미적 가치만이 문제된다.<sup>31)</sup>

27) 김승환·신범순, 앞의 책, 21면.

28) 구중서 역시 분단문학이란 곧 분단극복의 문학이자 통일지향의 문학이며 이는 ‘민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민족언어문학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일이 과제라고 보았다(「통일지향 문학의 여건」, 『실천문학』, 1981. 2권)

29) 김승환·신범순, 위의 책, 22면.

30) 이철호, 「이호철의 1960년대 소설 연구: 작가의 분단의식을 중심으로」,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여기서 분단은 단순히 여러 주제들 중 하나일 뿐이며 분단은 문학의 주제를 드러내는 적절한 매개상황으로서의 수단으로 인식된다.

분단문학은 분단 상황에 대한 인식의 방법과 시각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단문학에 대한 접근은 분단 상황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인식을 전제로 해야 한다. 분단논리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분단논리가 지배하는 상황에 안주할 경우, 분단문학은 분단논리의 범주 안에서만 허용될 수 있는 문학으로 성격이 규정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분단 상황의 문제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분단극복의 의지에 의해 새로운 전망을 요구하게 될 경우, 분단문학은 분단모순의 문학적 비판형식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분단문학의 영역 내에는 적극적 통일지향의지를 담고 있지는 않다하더라도 최근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통일 염원 희석현상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으면서, 분단 상황에 안주하려는 소시민성 등을 지적하고 있는 소설들도 포함될 수 있다.<sup>32)</sup>

권영민의 다음 진술은 앞으로 분단문학이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족과 국토의 분단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깊이 있게 인식하고, 그 역사적 조건의 극복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데에 문학의 역할이 컸다. …(중략)…그러나, 오늘의 한국문학은 분단 반세기의 문학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해방 이후 반세기의 역사가 민족과 국토의 분단으로 조건 지워진 것이라면, 내일의 문학은 이러한 비극적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통일문학의 정신적 좌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중략)…분단문학이 분단극복의 의미를 적극화하기 위해서는 민족사회의 내재적인 모순을 철저하게 비판하는 자세가 전제된다. 그것은 분단시대의 상황적 문제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부터 시작되

---

31) 김승환, 위의 책, 23면.

32) 심정민, 앞의 논문, 8-11면.

어. 이데올로기 문제에 내재해 있는 역사적인 모순을 극복하는 데에까지 그 정신적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분단문학은 결국 분단논리에 의해 은폐되어 있는 한국사회 내부의 구조적 모순을 규명하고, 그것을 정신적으로 극복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sup>33)</sup>

권영민은 분단문학을 ‘분단체제 및 분단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문학’과 ‘분단 체제에 대응하면서 그 이데올로기의 극복을 위해 노력해온 문학’으로 양분하여 후자만을 진정한 분단문학이라고 간주한다.<sup>34)</sup>

이와 같이 분단문학의 양상에 대한 논의를 살펴다 보면, 분단문학은 분단을 소재나 주제로 다루는 문학을 분단문학으로 보고자 하는 갈래와 더 나아가 분단 극복을 지향하는 문학을 분단문학으로 보고자 하는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분단문학을 분단으로 인한 여러 갈등과 모순을 다룬 주제와 소재의 문학을 가리키는 것으로 규정하되 분단 극복 문학이라는 차원으로 보고자 한다. 또한 분단문학은 모든 영역에 대해서 올바른 통일관을 가지고 통일의 필요성을 지적해주는 문학으로 이질화된 민족의 공감 영역을 확보하는 분단 극복과 통일 지향 의지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분단소설의 개념<sup>35)</sup>은 「남북 분단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소설이나 혹은 분단의 상황이 잘 드러나 있는 소설, 즉 남북 분단의 원인과 고착화 과정, 그리고 이것이 오늘의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 소설」로 80년대 이전까지는 ‘6·25소설’ 혹은 ‘전쟁소설’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였으나, 단지 전쟁이라는

33)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1945-1990』, 민음사, 1994, 26-27면.

34) 권영민, 『한국민족문학사 연구』, 민음사, 1988, 465면-474면.

35) 한철우 (외), 『문학(상)』, (주)분원각, 2002, 356면.

현상에만 시선이 고정되는 것일 뿐, 포괄적이지 못함으로써 분단소설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대부분 교과서에서는 분단문학(분단소설)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단지 작품의 성격을 이야기 할 때, 분단을 다룬 소설이라는 설명을 언급할 뿐이다. 오히려 전후문학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단과 관련된 논의들이 대부분 분단문제를 6.25 전쟁의 범주로 축소시켜 전개함으로써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도 여전히 대부분 분단소설을 전쟁소설 혹은 전후소설의 작품군으로 인식하는 데 그치고 있다.

## 2. 분단소설의 전개 양상

우리가 작품을 분석하고 이해할 때, 작가의 체험과 작품이 쓰여진 시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분단소설은 작가의 6.25 전쟁 체험 여부와 작품이 쓰여진 시기는 분단에 대한 작가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sup>36)</sup> 그러므로 개략적으로 6.25 전쟁 체험여부와 작품이 쓰여진 시기별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맥락에서 작가의 6.25 전쟁 체험 여부에 따른 세대 분류는 작가의 분단 인식의 차이를 가늠하게 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분단의 원인과 결과가 6.25 전쟁에 귀착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작가의 6.25 체험 시기와 유무와 관련하여 세대별 특성을 살피는 연구<sup>37)</sup>는 계속적으로

---

36) 물론, 전쟁 체험 유무에 의한 구분법들은 각 세대별 특징에 의해 문학사를 도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이루어져왔다. 크게 성인 체험세대, 유년기 체험세대, 미 체험세대로 나누어진다.<sup>38)</sup>

첫째, 성인이 되어 전쟁을 치른 직접 체험세대는 50년대 전쟁을 직접 체험하고 작품 활동을 했던 손창섭, 장용학, 선우휘, 서기원, 오상원 등이다. 이들의 눈앞에 닥친 전쟁은 생생한 상처이자 아픔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원인을 따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전쟁의 직접성 앞에 모든 인식들을 이념과 정치와 인간에 대한 환멸, 비인간적 상황에 대한 채념과 소극적으로 반응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것은 비극의 밀도가 상상력을 압도했다는 하나의 반증이지만, 또한 분단에 대한 냉철한 점검의 기회가 마련되지 못함을 시사한다.<sup>39)</sup> 정호웅 역시 직접 체험 세대의 분단

---

37) 김윤식, 「분단·이산문학의 수준」, 『우리 소설과의 만남』, 민음사, 1986.

「6.25 전쟁문학」, 『운명과 형식』, 숲, 1992.

유임하, 「현대 한국소설의 분단인식 연구」, 동국대 박사 논문 1996.

이동하, 「분단소설의 세 단계」, 김승환·신범순 엮음 『분단문학비평』, 청하, 1987.

이재선, 「한국전쟁과 50년대 소설」, 『현대문학』, 1989.1.

임현영, 『문학과 이데올로기』, 실천문화사, 1988, 114면-115면.

정호웅, 「분단극복의 새로운 넘어섬을 위하여」, 김승환·신범순 엮음 『분단문학비평』, 청하, 1987.

전영태, 「6.25와 한국소설의 재발견」, 『김승환·신범순 엮음분단문학비평』, 청하, 1987.

최일수, 『민족문학사론』, 동선사, 1998, 197면.

38) 대표적인 글은 다음과 같다.

김승환, 「분단문학과 분단시대」, 김승환·신범순 엮음 『분단문학비평』, 청하, 1987.

김윤식, 「분단·이산문학의 수준」, 『우리 소설과의 만남』

이동하, 「분단소설의 세단계」, 김승환·신범순 엮음, 앞의 책.

이재선, 「전쟁체험과 50년대 소설」, 『현대문학』, 1989.1.

분단문학을 세대별 특징으로 다루는 이러한 관점은 이제 평론의 관심을 넘어서 문학사 집필에서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문학사를 분단문학사로 한정하여 살펴볼 때, 한국전쟁의 출발과 새로운 모색, 전후소설 극복의 두 양상, 분단·이산소설의 전개로 분류하는 양상은 직접 체험세대, 유년기 체험세대, 미 체험세대의 작품 경향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작가들의 전쟁 경험 유무와 함께 한국 사회 내에 존재하는 한국전쟁, 4.19와 5.16, 그 이후의 산업화시대 등의 획을 긋는 사건들이 대략 10년 단위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대별 논의는 이제 공론화 단계를 넘어서 정착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소설이 갖고 있는 한계로 시점의 객관성을 견지하지 못함으로써 6.25전쟁의 객관적 형상화에 실패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장의 직접성을 넘어 분단의 원인에 대한 깊은 성찰도 행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들의 소설은 반공소설의 틀 속으로 폐쇄, 유형화되고 말아 냉전의식의 확대·심화라는 체제 편승적 역기능으로 기능하기도 하였다고 한다.<sup>40)</sup>

둘째, 유년시절에 6.25를 겪은 유년기 체험 세대들은 순진한 아이의 눈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sup>41)</sup> 김지연<sup>42)</sup>은 유년기 체험 세대의 작가들이 직접 체험세대가 갖는 전쟁의 직접성과 미 체험세대의 객관성을 함께 표현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라고 본다.

그러나 일인칭 소년 화자 시점으로 어린 시절 전쟁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전개되는 분단소설 역시 분단의 원인을 탐구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점도 있다. 이 세상을 채 알지 못하는 어린 화자에게 전쟁은 다만 그들에게는 불안과 공포, 배고픔의 존재인 것이다. 어린 화자의 순진한 시점에 고정되어 있는 한 객관적 인식에 의한 분단 원인 규명은 어려운 이야기이다. 이러한 형식의 소설들은 성장소설<sup>43)</sup>로서 어린 화자가 전쟁이 불러온 비극적

39) 유임하, 『분단현실과 서사적 상상력』, 태학사, 1998, 88면-89면.

40) 정호웅, 「분단극복의 새로운 넘어섬을 위하여」, 『분단문학비평』, 청하, 1987.

41) 권성임, 「분단소설 연구: 유년기 전쟁체험의 형상화 양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0.

유순자, 「6.25 전쟁과 이니시에이션 소설연구」, 강원대 석사학위 논문, 1999.

유지형, 「분단소설연구: 유년기 전쟁 체험의 형상화 양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논문, 1999.

조건상, 「분단인식의 형상화 양상 연구」, 『분단소설연구』, 제9호, 한국현대소설학회, 1998, 294면.

42) 김지연, 「윤홍길 초기 성장소설 연구」, 충북대 석사논문, 1999.

43) 전쟁을 배경으로 한 성장소설에 관한 연구로는

남미영, 「한국 현대 성장소설 연구」, 숙명여대 박사논문, 1992.

박미연, 「1950년대 성장소설 연구」, 덕성여대 석사논문, 1994.

오명숙, 「전쟁을 배경으로 한 이니시에이션 소설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3.

현실에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성인 체험세대의 한계가 되었던 직접성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과거사를 서술하면서 어린이의 시점을 차용한다든가, 성인의 시점과 어린이의 시점을 병렬적으로 서술하는 등의 기법을 동원했던 것은 과거와 현재를 계기적으로 이해하고, 현재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셋째, 전쟁 이후에 태어나 6.25를 경험하지 못한 미 체험세대<sup>44)</sup>는 이문열, 조정래 등을 필두로 소재차원에서는 한국전쟁을 다루고 있지만, 직접 전쟁을 체험하지 않은 현재까지의 모든 작가들을 포함한다. 6.25를 이야기해야만 6.25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6.25가 야기한 일그러진 조건들을 바로 잡는 노력이 6.25의 본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45)</sup> 물론 이들은 전쟁을 역사적 사실이나 문학적 소재의 사건으로 평면화 시키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 이동하<sup>46)</sup>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문제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알맞은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적합한 세대는 제3세대일 것이라고 언급한다. 그러나 분단 상황을 극복하는 데에 꼭 필요한 객관적 작업으로 객관적 인식과 원인의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유순자, 「6.25전쟁과 이니시에이션 소설 연구」,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7.

추돌란, 「전쟁 체험의 이니시에이션 소설 연구: 6.25 전·후 시기를 중심으로」, 건국대 석사논문, 1995.

최선호, 「전후 성장소설의 유년 주인공과 서술시점 연구」, 한남대 석사논문, 1995.

현영중, 「이니시에이션 소설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9. 등이 있다.

44) '미 체험세대'는 한국 전쟁 전후에 출생하여 한국전쟁을 구체적으로 인식·기억할 수 없는 세대로서 미 체험적 시각과 시점으로 문학작품을 형상화하는 작가군을 가리킨다. (박진우, 「1980년대 분단소설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2002.)

45) 전영태, 「6.25와 한국소설의 재발견」, 『한국문학』, 1985, 6, 313면.

46) 이동하, 「분단소설의 세 단계」, 김승환·신범순 엮음 『분단문학 비평』, 청하, 1987.

분단문학을 10년을 단위로 끊어 시대별 흐름을 살펴보는 연구<sup>47)</sup>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분단소설이 발표된 시기별의 특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50년대의 작품들은 대부분 수난의식으로 전쟁과 피난, 죽음, 폐허와 절망, 인간성 상실에 대한 충격의 형상화를 담고 있다. 분단소설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냉철한 역사인식의 토대에 기반을 둔 분단의 극복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50년대의 분단소설 작품은 진정한 의미의 분단 극복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60년대로 접어들면서, 분단문학의 양상은 50년대와는 다른 성격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60년대 문학은 4.19와 5.16이라는 역사적 소용돌이에 의해 문학적 경향이 점차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역사적 성찰의 시각 속에서 전쟁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려는 경향으로 바뀌게 된다. 양쪽의 이데올로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전쟁의 본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 최인훈의 『광장』이 60년대 소설의 주요한 면모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60년대 작품들은 전쟁의 의미에 관한 성찰과 비극적 체험과의 인식론적 거리를 확보하면서부터 전쟁은 상흔으로만 반복되는 속화된 차원을 벗어나 전쟁의 비 정당성,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의 잔혹행위, 맹목적인 이데올로기로 전락한 비인간적인 현실 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드러난다.<sup>48)</sup>

47)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1945-1990』, 민음사, 1994.

김병익, 「분단의식의 문학적 전개」, 『문학과 지성』, 1979, 봄.

「60년대의 문학의 가능성」, 『현대한국문학의 이론』, 민음사, 1972.

백낙청, 「80년대 소설의 분단극복의식」,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까치, 1985.

윤병로, 「50년대 작가의 문학적 특징」, 『한국현대소설의 탐구』, 범우사, 1980.

이시영, 「현대소설에 나타난 한국전쟁의 수용양상」, 경북대 석사논문, 1984.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79.

임우기, 「80년대 분단소설의 새로운 전개」, 『살림의 문학』, 문학과 지성사, 1990.

천이두, 「분단시대의 비극과 한국소설」, 『한국문학과 恨』, 이우출판사, 1985.

한민수, 「1970년대 분단소설연구: 분단극복의식의 형상화 양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1.

70년대는 체험 회상수법으로 6.25 전쟁의 상처, 화해, 극복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것은 70년대에 접어들면서 불기 시작한 동서 화해 무드의 영향과 7·4남북 공동성명 발표를 전후한 남북한 간의 화해 분위기가 이루어지면서, 좌파 이념에 대한 일방적으로 매도하던 이전 상황과는 달리 비교적 객관적으로 접근하려는 지적 논의들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신 정권의 극압적인 정치의 가중에 대한 비판의식과 이즈음 학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주체적 민족 사관에 대한 현실적인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작가들은 분단 현실에 대한 인식의 심화와 확대를 꾀하게 되었다.<sup>49)</sup> 70년대 발표된 분단소설은 한국전쟁의 ‘유년기 체험세대’라고 불리는 작가들의 태생적인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 물론 이것이 70년대에 발표된 분단문제를 다룬 작품을 분석함에 있어서, 이들 작가군의 세대별 공통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개별 작품들의 특수성을 소홀히 다루었다는 문제가 제기<sup>50)</sup>되기도 한다. 분단소설 작가의 세대론적 연구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분단문제와 소설사적 시각을 결합시켜 본격적으로 연구한 논문이 유임하의 「현대 한국소설의 분단인식 연구」<sup>51)</sup>이다.

48) 김윤식, 「60년대 문학의 특질」, 『우리 소설과의 만남』, 민음사, 1986.

49) 유임하, 앞의 논문, 77면.

50) 한민수, 「1970년대 분단소설 연구: 분단극복의식의 형상화 양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1, 5면.

51) 이 논문은 기존 논의들이 시도해 온 10년 단위의 설명 방식이나 세대론적 도식, 이념 편향적 해석을 지양하고 분단 문제에 대한 소설의 인식을 보다 객관적으로 조가하기 위해 ‘분단 인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현대 한국소설의 분단 인식상을 ‘인식 주체(자아)’와 ‘분단(세계)’의 관계를 설정하여 소설에 있어서 분단문제 인식은 인식주체인 ‘자아’와 분단현실이라는 ‘세계’사이에 발생하는 인식 방향으로 분류하여 이를 ‘자아-내적’, ‘자아-외적’, ‘세계-내적’, ‘세계-외적’ 네 가지 기본향을 중심으로 전쟁체험과 관련하여 한국 현대소설에서 나타나는 분단 인식을 검토하였다. (유임하, 「현대 한국 소설의 분단 인식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1996.)

유임하는 현대 소설의 분단 인식을 계열화하기 위해 해방직후부터 80년대까지 발표된 수많은 작품을 다시 테마별로 유형화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분단 현실에 대응해온 작가들의 다양한 형상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소재와 주제를

80년대 이후 작가들은 전쟁 미 체험 작가들로 철저한 반공교육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탐색과 객관적 안목으로 이데올로기 편향적 논리에서 벗어나 분단을 바라보는 시야가 확대된다. 8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분단문학은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 화해의 문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미 체험세대의 분단소설이 성취하고 있는 문학적 성과로 전쟁과 분단의 상처가 현재에는 어떠한 형태로 우리 삶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극으로부터 비롯된 부정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으로 현실에서 분단극복 의지를 나뉘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sup>52)</sup>

그러므로 학습자의 정확한 분단 인식을 위해서는 『문학』 교과서의 수록 분단소설은 유년기 체험 작가와 미 체험 작가의 60년대 이후에 발표된 작품들을 수록해야 할 것이다.

---

중심으로 분단소설을 분류하는 기존의 문학사적 연구들과 큰 차이점이 없다고 볼 수 있다.

52) 박진우, 「1980년대 분단소설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2002.

### Ⅲ. 분단소설의 교육적 의의

문학교육의 목표를 원근법적인 시각에서 설정할 때, 가장 멀리 놓이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민감하게 와 닿는 문제가 바로 분단된 문학사이다.<sup>53)</sup> 문학교육에서도 민족 분단의 현실은 중요한 관여 요소가 되는 것이다.

교육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국가가 모든 교육과정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실제로 학교교육, 즉 문학교육은 보수적 세계관을 드러내는 문학작품, 반공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지닌 작품, 탈사회적이고 탈이념적인 순수문학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학생들의 그릇된 인식을 유도하였다. 최근에는 지나친 반공주의는 탈색되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통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처럼 교육이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로 지배·권력 관계의 사회 질서를 정당화시키거나 사회의 불평등한 위계제를 재생산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학교가 상대적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학습자들은 비판적 학습능력이라는 값진 무기가 있으며, 그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학교교육과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문학교육은 다른 어떤 영역에서도 쉽게 이루어 낼 수 없는 민족의 화해와 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강력한 자장을 펼쳐 낼 수 있을 것이다.<sup>54)</sup>

53)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299면.

## 1. 분단소설의 교육론적 접근

우리민족에게 해방은 잠깐의 기쁨이었다. 미·소 양대 진영의 세력 다툼으로 국토가 분단되고, 이념적 대립으로 6.25 전쟁의 비극을 겪게 되었으며, 전쟁 이후 민족의 이념적 분열은 더욱 심화되었다. 남한에서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정치, 사회, 문화의 지배이념이 되었다. 따라서 남북 이데올로기에 대한 갈등과 대립 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이 시기 작품들이 반공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6.25 전쟁의 상황과 그 후의 현실을 볼 때 한국문학은 절망적 사회 상황에서 전쟁의 상처를 정신적으로 극복해야만 했다. 이러한 문학적 과제와 함께 분단 시대가 낳은 분단문학이 이 시기부터 한국 현대문학사의 전면에 등장하였다.<sup>54)</sup>

한국 문학은 다양한 전개양상을 보여 왔는데, 일반적으로 한국 현대 문학사를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20세기 초까지의 개화 계몽 시대 문학, 20세기 초반에서 중반에 이르는 일제 식민지 시대의 문학, 20세기 후반에 해당되는 해방 이후의 문학으로 구분해 볼 때<sup>55)</sup> 한국의 현대사에서 해방 이후의 시대는 민족 분단의 시대로 분단 구조가 청산되지 못한 오늘날까지의 문학을 넓은 의미의 분단문학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에 대한 논의가 문학의 독자적인 가치와 그 존재적 의미를 구현할 수 있는 문학성의 발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현실적 객관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학이 기반을 두고 있는 상황적 여건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 해석

54) 김대행 (외), 앞의 책, 100면.

55)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3. 99면-100면.

56) 권영민, 『한국 현대 문학사 1945-1990』, 민음사, 1994, 15면.

이 필요할 것이다. 즉, 문학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 가치와 시대적 관련양상을 동시에 조망해서 하나의 전체적인 형상화로 파악해야 한다.<sup>57)</sup>

분단 문학의 궁극적 목표는 분단 극복이다. 그러나 분단 극복 의식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정확하고 냉철한 역사의식과 분단 인식이 필요하다. 역사 인식을 선행 조건으로 한 분단 극복 의식은 분단의 현 모습을 정확하게 알게 하고 분단 극복의 필요성도 깨닫게 한다. 또한 민족의 분단을 이야기할 때, 통일이라는 긍정적 결론을 얻기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분단 극복에 대한 교육적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5차 교육과정부터 분단 고착화에 기여하는 반공교육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허용되기 시작하여 북한을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통일을 이루기 위한 한쪽임을 강조하였다. 6차 교육과정부터는 통일 교육에 대한 목표가 구체적이고 전망적으로 바뀌게 된다. 지금 7차 교육과정에 이르러서는 폭넓은 의미에서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의 위상확립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sup>58)</sup>

1990년대에 들어 세계화 담론이 부상하면서 노골적인 반공주의에 역기능을 우려하여 '통일', '민족', '세계화', '국제 경쟁력' 등이 주도적인 담론으로 부상하게 된다. 초·중·고등학교의 도덕과 사회 교과서에서도 남북간의 협력과 평화 공존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것은 '통일'에 비중을 두면서, '안보'는 통일의 하위 영역에 두려고 하는 움직임이

---

57) 권영민은 해방이후 한국문학을 시대적 순서개념과 문학적 본질개념의 상대적 인식에 의거해서 해방이후 분단시대 문학은 (1) 해방과 민족문학의 확립→(2) 전후의 현실과 문학의 분열→(3) 산업화 과정과 문학의 사회적 확대로 구분하였다. 권영민, 앞의책, 24면.

58) 통일의 의미를 남북의 민족구성원이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상태이다. 통일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남과 북이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적대성을 감소시키고 평화정착을 실현하여 '남북연합'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과도적 단계의 통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키면 완전한 '법적·제도적' 통일에 도달할 수 있다. (통일부, 「2003년 통일 교육 기본 지침서」, 통일정책실, 2003.)

일어나고 있으며, 동포애를 강조하던 규범적 접근에 비해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더욱 강조하면서, 소극적인 분단 극복의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통일 방안을 모색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sup>59)</sup>

그러나 50년이 넘는 기간동안 한국 사회의 모든 이성적·비관적 사고를 억압하는 강력한 기제로 반공주의가 군림해 왔기 때문에 탈반공·탈분단이라는 표면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회 전반에 내면화되어 모든 사상과 이념·행위를 규제하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sup>60)</sup> 더욱이 학교에서 통일 교육은 여전히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분단 의식의 극복을 위한 교육 내용과 수업 설계가 요청되며, 문학교육의 방향 전환 또한 제기되는 시점에서 소설은 독자가 대면하게 되는 대상이나 세계에 또 다른 시각을 갖게 해주는 기능을 갖는다. 소설을 교육한다는 것은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인식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 학습한 소설에 따라 현실에 대한 인식은 물론 가치 지향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다. 그렇다면 분단국가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수록 분단소설 속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에 따라 학생들의 분단 인식, 통일 의식은 달라질 수 있다.

---

59) 조한혜정, 「통일 공간과 문화-비판적 재해석」, 조한혜정이우영 엮음, 『탈분단 시대를 열며』, 삼인, 2000, 317면.

60) 권혁범,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 한국 반공주의의 의미체계와 정치사회적 기능」, 『탈분단 시대를 열며』, 삼인, 2000, 35-37면.

## 2. 7차 교육과정과 통일 문학론

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문학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보면, 문학교육이 학습자의 전인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발전시켜 ‘문학에 대한 태도’ 영역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설정하고 있다.

‘통일 문학<sup>61)</sup>, 세계 문학과 관련하여 한국 문학의 가치를 찾고 계승·발전시키는 태도를 지닌다.’ 이 내용은 한국 문학의 가치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기쁨으로써 통일 시대와 세계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과소평가되어 온 일제 강점기의 좌파 문학은 물론, 분단 이후 50여 년 동안 남한 문학, 북한 문학, 재외 국민 문학으로 나누어 발전해 온 문학을 아울러,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민족 문학의 모습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sup>62)</sup> 여기서 특히 분단이라는 시대 상황을 바탕으로 하는 소설 작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분단 현실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억압하는 면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현상보다 훨씬 더 크게 존재한다. 인간은 문학을 통하여 억압하는 것과 억압당하는 것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 부정적 힘을 인지한다. 그 부정적 힘의 인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를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느끼게 한다.<sup>63)</sup>

---

61) 통일문학은 정치체제의 완전한 통일에서 가능할 수 있다. 즉, 분단국가에서 민족국가로 통합된 단계에서 가능한 문학이 통일문학인 것이다. 그러나 방법론적 차원에서의 통일문학은 민족통일을 위한 문화적 기반을 다지는 문학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 문화적 동질성의 단초를 마련함으로써 정치적 통일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통일문학은 통일지향의 문학이 되어야 한다.(김영철, 「통일문학 방법론 서설」, 『우리말글』, 20, 2000, 17면.

62) 김창완·우한용, 앞의 책, 319면.

63) 김현,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김인환·성민엽·정과리 엮음, 『문학의 새로운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6, 23면.

세계를 총체적으로 인식하여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로의 소망을 확대시키도록 하는 문학 본연의 임무를 교육 현장으로 전이시킬 수 있다면, 소설교육의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분단 상황이 초래하고 있는 모순과 억압의 현실을 인지하여 이를 화해와 공존의 현실로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촉발시키는 데에 분단소설 작품에 대한 교육이 의미를 갖게 된다.

7차에서는 학습자에 의한 문학 작품의 능동적 수용의 결과를 현실 세계로 투사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 문학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소설교육의 발전적 변화라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 과정의 내용이 문학교재에 실제로 반영되는가이다. 7차 교육과정에 맞게 『문학』 교과서 안의 소설 작품 선정과 구성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할 것이다.

## IV. 교과서 분단소설의 현황과 분석

앞 장에서는 분단극복을 위한 소설교육의 필요성과 분단문학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제부터 현행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대상으로 분단소설 작품에 대하여 검토한 후 현행 소설교육이 분단 극복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제껏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분단소설에 관한 연구는 6차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문학』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비판적 관점에서 논의하였으나, 여기서는 7차 교육과정에 맞게 새롭게 편찬된 18종 『문학』 교과서를 논의대상으로 한다.

### 1. 교과서 분단소설의 수록 현황과 문제점

앞에서 정리한 분단소설의 구체적 개념을 바탕으로 7차 교육과정 18종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소설 중 분단소설을 선별해보았다. 7차 교육과정에 의해 새로 개편된 『문학』 교과서 수록 분단소설과 6차 교육과정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분단소설을 비교·분석해봄으로써 어떠한 발전과 변모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6,7차 18종 문학교과서에 실려 있는 분단소설을 선별하여 표를 작성하였다.

### 1.1. 6차 교육과정 교과서 수록 현황

작품	작가	한 샘 (구)	지 학 (권)	교 학	지 학 (김)	두 산 (김)	대 일	한 샘 (김)	민 문 고	동 아	지 학 (박)	금 성	학 문	천 재	두 산 (우)	노 벨	선 영	대 한 (최)	대 한 (한)
불신시대 (1957)	박경리														○				
불꽃 (1957)	선우휘									○			○			○			
비오는 날 (1953)	손창섭	○																	
유예 (1955)	오상원	○						○	○	○									
오발탄 (1959)	이범선			○															○
해방전후 (1946)	이태준																	○	
수난시대 (1957)	하근찬						○			○			○			○			
카인의 후예 (1954)	황순원														○				
학(1953)	황순원		○			○													
나무들 비탈에 서다 (1960)	황순원																	○	
학마을 사람들 (1957)	황순원										○								
목님이 마을의 개(1948)	황순원	○										○							
어둠의 혼	김원일														○				

(1973)																				
나목 (1970)	박완서							○												
장마 (1973)	윤홍길									○										
병신과 머저리 (1966)	이청준	○																○		
동행 (1963)	전상국							○												
광장 (1960)	최인훈	○	○	○	○		○	○	○	○	○	○	○	○	○				○	○
까치소리 (1956)	김동리						○													
달아지는 살들 (1962)	이호철																		○	

<표1> 6차 교육과정 18종 『문학』 교과서 수록 분단소설

번호	작품	횟수	번호	작품	횟수
1	광장	15	11	해방전후	1
2	유예	4	12	카인의 후예	1
3	수난이대	4	13	까치소리	1
4	불꽃	3	14	어둠의 혼	1
5	학	3	15	나목	1
6	병신과 머저리	2	16	장마	1
7	오발탄	2	17	동행	1
8	목넘이 마을의 개	2	18	나무들 비탈에 서다	1
9	비오는 날	1	19	학마을 사람들	1
10	달아지는 살들	1	20	불신시대	1

<표2> 6차 분단소설 작품별 수록 횟수

6차 교육과정의 문학교과서 수록 분단소설의 발표 시기를 살펴보면 195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분단소설 총 20편 중 1950년대 작품이 10편으로 약 56%에 해당하고, 60년대 작품은 5편으로 약 28%에 해당하며, 70년대의 작품은 3편으로 16%에 해당되어 1950년대 작품이 편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작가 또한 6.25 전쟁 체험의 유무로 성인 체험세대, 소년기 체험세대, 미 체험세대로 구분하였을 때, 문학교과서 수록 분단소설의 작가는 소년기 체험세대인 '윤홍길', '김원일', '전상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인 체험세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다른 작가의 작품에 비해 황순원의 작품은 「카인의 후예」, 「학」, 「학마을 사람들」, 「나무들 비탈에 서다」로 4편이나 실려 있다.

### 1.2. 7차 교육과정 교과서 수록 현황

작품	작가	지학 (권)	지학 (박)	디 담 돌	천 재	금 성	두 산 동 아	문 원 각	블 랙 박 스	교 학 (구)	민 중	중 앙	한 교	상 문	대 한	교 학 (김)	형 설	태 성	청 문 각	
학(1953)	황순원		○	○					○											
나무들 비탈에 서다(1960)	황순원							○												
너와 나만의 시간(1964)	황순원						○													
목님이 마을의 개(1948)	황순원					○														○
사수(1957)	전광용						○													
유예(1955)	오상원		○	○	○				○		○									○
탈향(1955)	이호철												○							
많아지는 살들	이호철				○															○

(1962)																			
해방전후 (1946)	이태준				○														
불신시대 (1957)	박경리							○									○		
비오는 날 (1953)	손창섭				○			○	○	○						○			
병신과 마저리 (1966)	이청준				○					○									○
광장(1960)	최인훈	○	○	○	○	○		○	○	○	○	○	○			○	○	○	○
어둠의 혼 (1973)	김원일				○		○									○			
수난시대 (1957)	하근찬		○					○		○	○							○	
오발탄 (1959)	이범선						○			○									○
나목(1970)	박완서								○		○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 (1972)	박완서							○											
엄마의 말뚝 (1980)	박완서	○							○									○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982)	박완서															○			
중국인 거리 (1979)	오정희								○										
봄은방 (1988)	임철우																	○	
철쭉제 (1981)	문순태																		○

<표3> 7차 교육과정 18종 『문학』 교과서 수록 분단소설

번호	작품	횟수	번호	작품	횟수
1	광장	15	13	목님이 마을의 개	2
2	유예	6	14	사수	1
3	비 오는 날	5	15	탈향	1
4	수난이대	5	16	나무들 비탈에 서다	1
5	오발탄	3	17	너와 나만의 시간	1
6	학	3	18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 니	1
7	어둠의 혼	3	19	중국인 거리	1
8	엄마의 발뚧	3	20	철쭉재	1
9	병신과 너저리	3	21	그 해 겨울은 따뜻했네.	1
10	불신시대	2	22	붉은 방	1
11	닿아지는 살들	2	23	해방전후	1
12	나복	2	24		

<표4> 7차 분단소설 작품별 수록 횟수

7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 교과서 수록 분단소설을 살펴보면, 6차 교육과정의 『문학』 교과서에서 수록되었던 선우휘의 「불꽃」,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 김동리의 「까치소리」, 윤홍길의 「장마」, 황순원의 「학마을 사람들」이 빠지고 새로운 작품들이 대거 수록되었다.

엄정미<sup>64)</sup>는 6차 교육과정 18종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분단소설 작품들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분단소설 작품 속에 등장하는 공산주의자들은 대부분 비이성적이고 비도덕적이며 잔인한 인물로 그려져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는 인간적인 지주계층을 잔인하게 숙청하는 비인간적인 공산단원들과 무지하고 탐욕스러운 가난한 농민들을 카인의 후예로 형상화하여 토지개혁이 부당한 역사적 사건인 것처럼 보여주며, 선우휘 「불꽃」 또한 공산주의자들을 탐욕스런 ‘살인 청부업자’로 표현한다. 이런 부정적인 관점은 공산주의자가 된 친구 연호의 잔인한 행위를 통해 극대화된다. 공산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

64) 엄정미, 앞의 논문.

이 맹목적인 비판에만 내달리는 작가의 노골적인 반공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범선의 「학마을 사람들」<sup>65)</sup>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공산주의자 바우는 사랑의 복수심으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힌다. 마치 공산주의자들은 현실에 대한 감정적인 불만 때문에 폭력과 살인을 일삼는 인물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다. 이처럼 공산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맹목적인 비판에만 내달리는 작가의 노골적인 반공의식은 탈냉전과 통일로의 변화라는 오늘날의 세계사적, 민족사적 관점에서 재해석해 볼 때, 결코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며 분단 극복을 위한 소설 교육의 텍스트로 적합하지 않다. 윤홍길의 「장마」에서는 국군 장교로 입대한 ‘나’의 외삼촌은 외모가 출중하고 이성적인 인물로, 빨치산이 된 삼촌은 미성숙하고 감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고등학교 국어(상) 7단원에 수록되어 있어, 『문학』 교과서에 중복 수록 될 필요가 없다. 앞에서 제시한 작품들은 7차 교육과정에 『문학』 교과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7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편된 『문학』 분단소설 총 23편으로 6차 교육과정에 의해 수록된 20편보다 작품 수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중 1950년대 작품은 8편으로 약36%, 1960년대 작품은 5편으로 약 27%, 1970년대·1980년대 작품은 각각 4편씩 약 18%에 해당된다. 6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7차 교육과정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분단소설은 195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6차 『문학』 교과서는 50년대의 분단소설이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에 7차 『문학』 교과서는 5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골고루 선정되어 수록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1970년대 분단문학은 60년대 분단문학의 성과를 이

65) 이 작품은 현대소설이라고 보기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설화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어 막연한 역사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어받으면서 한층 성숙한 면모를 보여준다. 이 시기에는 분단 현실에 대한 관심이 문단 전체로 확산되면서 많은 양의 작품이 생산된다. 이호철, 박경리, 최인훈 등의 중견작가들이 왕성한 필력으로 분단 현실을 천착하였고, 김원일, 윤홍길, 박완서, 문순태, 황석영, 이문구, 조정래, 전상국, 이동하, 현기영, 한승원 등 신예작가까지 대거 가세하여 분단 소재 작품들을 본격적으로 창작하게 된다. 새로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도 70년대 이후의 작품들이 대거 수록되어 폭넓은 분단 작품을 학생들이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전적인 경향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6차와 7차 교육과정의 18종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소설들 중 분단소설을 선별해서 <표1>과 <표3>을 작성해 보았다. 또 선별한 작품 별로 각 교과서에 수록된 횟수를 <표2>와 <표4>로 정리하였다.

### 1.3. 교과서 분단소설의 유형

7차 교육과정에서 수록된 소설 중 23편이 분단소설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작품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3편의 분단소설을 다시 소재적 측면과 주제적 측면을 분단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기본 과제로서의 역사인식을 근거로 다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은 분류가 가능하다.

- ① 해방 공간의 개인-「해방전후」
- ② 전쟁과 인간 실존의 문제-「유예」
- ③ 전후의 파폐한 실존적 현실-「불신시대」, 「중국인 거리」, 「너와 나만의 시간」, 「탈향」, 「사수」, 「닿아지는 살들」, 「비 오는 날」, 「오발탄」

④ 극단적 이데올로기의 비판-「광장」, 「붉은 방」

⑤ 분단의 아픔과 극복-「학」, 「목님이 마을의 개」, 「어둠의 혼」, 「수난이대」, 「나무들 비탈에 서다」, 「병신과 머저리」, 「철쭉제」, 「나무」, 「엄마의 말뚝」,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 「그 해 겨울은 따뜻했네」.

교과서 분단소설 23편을 주제별로 유형화해보면 ‘해방 공간의 개인’, ‘전쟁과 인간 실존의 문제’, ‘전후의 피폐한 실존적 현실’, ‘극단적 이데올로기의 비판’, ‘분단의 아픔과 극복’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 중 ‘전후의 피폐한 실존적 현실’과 ‘분단의 아픔과 극복’을 담고 있는 작품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 포함하는 작품들 중 「너와 나만의 시간」, 「탈향」, 「사수」, 「철쭉제」, 「엄마의 말뚝」,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 「그 해 겨울은 따뜻했네」는 7차 교육과정에서 새로 선정되어 수록된 작품이다.

특히, 다른 『문학』 교과서 보다 분단소설을 많이 수록하고 있는 ‘천재’, ‘두산동아’, ‘문원각’, ‘블랙박스’, ‘교학(구)’, ‘민중서림’ 출판사의 교과서를 살펴보면, ‘천재’의 경우 주제별 5가지 유형분류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모두 골고루 수록하고 있다. ‘두산동아’는 ‘전후의 피폐한 실존적 현실과 분단의 아픔과 극복’을 주제로 한 작품을 중심으로, ‘민중서림’은 ‘분단의 아픔과 극복’을 중심으로 한 작품을 집중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이 작품들을 살펴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논의의 대상인 이 작품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들이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들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적 의의를 전제로 하였다. 본격적인 분단소설 연구에서는 발표 시기와 분단 상황, 작가에 관한 연구가 함께 진

행되어야 하나, 본고에서는 분단소설의 소설 교육 내용으로서의 적절성 문제 검토를 중심적인 연구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분단소설을 주제별로 유형화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소설교육의 방향 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현행 『문학』 교과서 안의 분단소설 작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작업을 통해 현행 소설 교육이 분단 극복을 위한 교육에 기여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현행 『문학』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검토하여 새로운 분단소설의 작품 선정과 수록 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7차 교육과정에서 새로 선정되어 수록된 23편의 분단소설 뿐만 아니라, 현시점까지 발표된 많은 분단소설이 있으며, 앞의 다섯 가지 유형이 아닌 다른 유형의 주제를 드러낸 작품도 많다. 그중에서 특히, 「순이삼촌」, 「노을」, 「아버지의 땅」, 「판문점」, 「아버지 감시」, 「부지개는 언제 뜨는가」, 「아베의 가족」 등은 교과서 분단소설 선정 대상으로 검토가 필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현기영의 「순이 삼촌」은 우리 근대사의 역사적 전개 과정 속에 감춰져 있던 사회적 모순 구조까지 동시에 추적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된 작품으로 은폐되었던 역사의 진실을 드러냄으로써 제주도 공비토벌 사건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김원일의 「어둠의 혼」이 성장기 각성으로 감정적인 혈연적 해결로 인한 분단극복을 표현하고 있다면, 「노을」은 더 나아가 공산주의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결국 동일하게 자유를 사랑하는 한민족이고 핏줄이라는 인식은 분단모순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더불어 극복의 차원으로 한 단계 발전한 작품이다. 임철우의 「아버지의 땅」은 미 체험 세대들이 직접적인 이유도 없으면서 지니고 있는 편견을 지적하고 분단 극복을 위해 체험세대로부터 미 체험세대까지의 공동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호철의 「판문점」은 분단국가의 국민인 우리가 남

과 북으로 갈려 살아온 이질감과 동질감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준다. 그 동질감과 이질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 또한 잘 드러내고 있다. 최윤의 「아버지 감시」는 90년대 작품으로 통일이나 남북교류가 실현된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지난 역사의 비극적 상처와 보상의 욕망을 해소할 수 없으며,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냉정한 인식하에 이질화된 민족의 해후와 동질감 회복의 기초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다. 윤홍길의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에서는 분단의 희생자인 당숙모와 아이의 결합을 통해 분단극복의 전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며, 전상국의 「아베의 가족」은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고통의 근원인 아베를 찾아 한국으로 돌아옴으로서 화해와 현실극복의 단초를 마련한 작품으로 상처의 뿌리를 직접 찾아 치유하겠다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자아로 회복하고자 한다.

이 작품들은 기존의 교과서에 수록된 분단소설과는 또다른 분단극복의 방향의 제시하고 있으므로 분단소설의 문학적 의의가 뛰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교과서 수록 분단소설을 중심으로 논의를 펼치고자 하므로 이 작품들에 대한 논의는 깊이 다루지 않는다.

#### 1.4. 교과서 분단소설 수록 현황의 문제점

7차 교육과정 교과서 수록 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첫째,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와 『문학』 교과서에 분단 현실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수록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한층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7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정된 18종 『문학』 교과서 각 출판별 분단소설을 살펴보면, ‘천재’와 ‘문원각’이 7편씩 수록되어 있고, ‘두산’, ‘블랙박스’, ‘교학(구)’, ‘민중’이 각각 5편씩, 나머지는 그 이하의 분단소설을 수록하고 있다. 한 작품의 분단소설을 수록하고 있는 교과서는 최인훈의 「광장」을, 두 작품의 분단소설을 수록하고 있는 교과서는 「광장」과 다른 한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장」은 6차와 마찬가지로 15종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어 모든 교과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광장」이 분단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 작품만을 수록하여 학생들에게 정확한 분단 인식을 심어주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특히 ‘상문출판사’는 분단소설에 해당하는 작품을 한편도 수록하지 않고 있다.

둘째, 작가층의 편향성 문제이다. 교과서 수록 분단소설의 작가 17명 중 성인체험 세대는 황순원을 포함하여 10명, 유년기 체험세대는 김원일을 비롯하여 6명, 미 체험세대는 임철우 한명으로 각각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성인체험 세대의 작가가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분단의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보다 전쟁의 비극과 인간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거나 전쟁이 빚어낸 참상을 여러 각도로 보여주는 작품이 여전히 많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셋째, 6차의 분단소설이 50년대에 창작된 작품이 대거 수록되었던 것에

비해 7차 교육과정의 분단소설은 80년대 작품까지 다양한 작품이 수록되었으나, 50·60년대의 작품은 6차의 분단소설과 거의 동일한 작품이 그대로 선정되어 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표된 분단소설 작품은 한편도 선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분단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우리의 비극적인 현실이고, 많은 미 체험세대의 작가들이 분단문제를 문학적 소재로 삼고 있다. ‘임철우’의 경우도 미 체험세대에 속하지만 가장 커다란 문제인 분단모순에 대단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작가이다. 그러므로 분단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시각을 드러내는 90년대 이후에 발표된 교육적 의의를 담고 있는 분단소설들도 교과서에 선정되어 수록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은 문학작품을 통해 작가가 제시한 가치관과 사람의 대응방식을 이해하고 혹은 수용하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해 나간다. 따라서 그들이 몸담고 있는 현시점에 대한 이해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을 무시하고 문학사에 대한 평가만을 고집하여 시대에 뒤떨어지는 작품만을 수용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교육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금 당대 작품을 폭넓게 수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2. 교과서 분단소설 분석과 문제점

18종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분단소설은 총 23편이다. 본고에서는 『문학』 교과서 수록 분단소설 23편 중 전쟁의 피폐한 삶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 손창섭의 「비 오는 날」과 분단의 아픔과 극복 즉, 분단 극복 의지를 주제로 하고 있는 작품 중 1960년대 이후 발표된 「병신과 머저리」, 「나무들 비탈에 서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톨니」, 「엄마의 발뚎」,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어둠의 혼」, 「나무」 작품을 학습목표와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분단소설을 교육하는 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총 23편 중 8편의 작품을 선택하여 분석하는 이유는 앞에서 논의 했듯이 60년대 이후부터 분단을 인식하는 내용이나 태도가 그 이전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60년대 이후의 분단소설에 보다 더 주목하고, 분단소설 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분단 극복을 지향하기 위하여 분단 극복 의지를 주제로 하고 있는 작품을 선정하였다.

6차와 7차 교육과정 18종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분단소설을 살펴보면 분단 극복을 주제로 담고 있는 작품 중 6차 교육과정까지 계속적으로 수록되었던 「병신과 머저리」, 「어둠의 혼」, 「나무」은 7차 교육과정에서 새로 개정된 각 출판 문학 교과서의 수록 횟수가 더욱 높아졌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 손창섭의 「비 오는 날」은 6차 교육과정에서는 ‘한샘(구)’ 문학 교과서 1종에만 수록되었다가 7차 교육과정에서는 5종의 교과서에서 수록되어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분단 극복을 주제로 담고 있지 않지만, 피폐한 전후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비 오는 날」도 함께 분석의 대상으로

로 삼고자 한다.

## 2.1. 교과서 분단소설 분석

### 2.1.1. 「비 오는 날」

출판사	단원명	학습 목표
문원각 (상)	Ⅲ. 소설의 수용과 창작-소설의 사건과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설의 배경과 사건 사이의 관계 이해한다.</li> <li>· 소설의 배경이 주제와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li> </ul>
천재 (상)	Ⅲ. 소설의 수용과 창작-소설의 배경과 문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설에서 배경의 중요성과 역할을 알고 작품의 수용과 창작에 적용할 수 있다.</li> <li>· 개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서의 문체의 의의를 알 수 있다.</li> <li>· 구체적인 작품에서 배경과 문체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li> </ul>
블랙 박스 (하)	Ⅷ. 한국 문학의 특 질과 흐름-해방 후 의 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자와 작품이 쓰인 시대 배경을 고려하면서 감상한다.</li> <li>· 작품 속 인물들의 삶을 시대 배경과 연관시켜 가며 읽는다.</li> </ul>
대한교 과서 (하)	V. 한국 문학과 세 계 문학 2. 한국 문학의 흐름 과 양상-해방기 및 전후의 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대 현실에서 비롯된 비극적 운명을 주체적, 능동적으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상실한 주인공들의 내면 심리와 허무주의적 분위기를 통해 한국 문학사에서 6.25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li> </ul>

손창섭의 「비 오는 날」은 절망적인 상황과 그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인물들의 삶을 통해 전쟁이 가져다 준 물질적, 정신적 상처와 전후의

참상을 고발하고 있다. 여름 장마와 어우러진 한 오누이의 정경을 통해 치밀하게 묘사된 작품이다. 즉, 이 소설은 사회적 배경,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을 적절히 배합함으로써 생존의 비극성을 밀도 있게 구현해 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소설은 어린 시절부터 대학 때까지 동창이었던 '원구'라는 인물이 '동욱' 남매의 모습을 관찰하여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빗소리를 들을 때마다 원구에게는 으레 동욱과 그의 여동생 동욱이 생각나는 것이었다. 그들의 어두운 방과 쓰러져 가는 목조건물이 비의 장막 지편에 우울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중략) 원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동욱과 동욱은 그 모양으로 언제나 비에 젖어 있는 인생들이었다. - 「비 오는 날」, 블랙박스 p.184.

대학까지 나오고 꿈이 목사이지만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누이가 그린 초상화를 미군부대에 불법으로 파는 동욱과 그림 그리는 재주와 고운 외모를 지녔으나, 신체적 불구인 동욱은 한국 사회의 불구적 상황의 전형적 인물로 형상화 된다. 작가는 그들의 삶을 끝까지 파국으로 맞게 함으로써 전후 사회 삶의 화해의 가능성을 봉쇄해버린다. 즉,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는 인간적인 삶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전쟁이 만들어 낸 사회의 폐허 상태는 어느덧 개개인의 내면에까지 우울과 무기력, 절망이라는 심리적 폐허 상황을 구축하게 한다. 그것은 또한 출구 없는 전후 사회의 무기력에 대한 강한 부정의식을 깔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sup>66)</sup>

이 작품의 배경은 글 전체의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적 배경으로 제시된 피난지 '부산'이라는 곳과 시간적 배경으로 '사십 일이나 계속된 긴 장마철'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부산은 전쟁 중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존을 위해 밀려온 유이민들이 살아가는 비극적인 곳이다. 동욱 남매도 폐가에 가까운

66) 엄정미, 앞의 논문, 33면.

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들의 삶이 지닌 신체적·정신적 불구성이 이 배경과 연결된다. 시간적 배경으로 제시된 ‘비 오는 날’은 장마철의 눅눅함과 같은 불쾌감, 우울함이 이 작품의 주제와 관련하여 무기력함, 절망감 등을 선명히 드러낸다. 이런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각 교과서의 학습목표를 살펴보면, 이 소설을 수록하고 있는 교과서들은 공통적으로 배경과 주제의 관련성을 학습목표로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진후 사회의 패허를 무기력한 원구와 불구적인 동욱 남매를 장마철의 풍경에 배치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위의 학습목표는 적절하다.

### 【학습활동】

#### <문원각>

##### ▶ 감상하기 전

1. ‘비 오는 날’의 배경이 사건의 전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뒤에 어떤 사건이 전개될지 예측하여 말해 보자.

##### ▶ 감상과 반응

1.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정리해 보자.
2. 인물의 성격과 삶의 조건과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3. 이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동욱’이 ‘원구’에게 남긴 편지의 내용을 상상하여 써보자.

##### ▶ 목표 다지기

1. ‘비 오는 날’의 사건 전개 과정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
2. 이 소설의 배경이 주제를 나타내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보자.

#### <천재>

1. ‘동욱’과 ‘동욱’이 거처하는 집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들을 모두 찾아보고, 표현상의 특징을 말해 보자. 그리고 이들 표현을 종합하여 ‘동욱’의 집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완결된 한 문장으로 작성하여 발표해 보자.

2. 이 소설의 문체상의 특징을 정리해보고 이런 특징이 작품의 배경이나 주제를 드러내는 데 어떤 효과를 주는지 발표해 보자.
3. '동욱'이 '동욱'을 모질게 대하는 이유를 작품의 내용을 통대로 하여 말해 보자.
4.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처럼 '비에 젖은 인생'들이 현재 우리 주위에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오늘날의 사회적 배경은 무엇이지 말해보자.

#### <블랙박스>

1. 이 작품의 배경인 '비'의 상징적 의미를 알아보자.
2. '동욱'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묘사는 어떤 분위기를 자아내며 이러한 배경 묘사를 한 작가의 의도를 이 작품이 쓰인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생각해 보자.
3. '동욱'과 '동욱' 남매는 어떤 삶의 상황을 치해 있는지 말해 보자.
4. [토의토론] - 원구를 대하는 '동욱'의 태도는 '모멸과 일종의 반항적 태도'로 그려져 있다. 왜 그런 태도가 형성되었을지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해 보자.
5. [토의토론] - 동욱 남매가 떠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원구는 왜 그 사실에 대해 자책감을 갖는지에 대해 친구들과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보자.
6. [조사탐구] - 이 소설에서 전쟁 당시의 피난지 부산의 현실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당시의 실제 생활상은 어떠했는지 조사해서 발표해 보자.

#### <대한교과서>

1. 이 작품의 주된 배경 설정을 확인하고, 이러한 배경이 자아내는 소설 전체의 분위기 알아보자.
2. 등장 인물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런 인물들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이 소설은 특별한 사건에 의해 전개되는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인물과 배경의 묘사를 통해 전후 사회의 분위기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 감상의 핵심일 것이다. 그리고 소설이 특정한 사건이나 갈등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배경의 분위기나 인물의 성격만으로도 문학적 현실을 탁월하게 그려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교과서의 학습활동은 이와

관련된 활동을 요구함으로써 학생들은 전쟁 상황이 남과 북의 대립과 단절, 중요만을 낳은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삶의 뿌리를 잃어버린 개인들의 비참한 삶을 통해 전쟁의 잔인함과 비극성을 학습하게 될 것이다. 또한, ‘블랙박스’ 학습활동에서는 토론을 통해 작품을 단순히 작품 내적 의미에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삶 속에서 추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 2.1.2. 「병신과 머저리」

출판사	단원명	학습목표
천재 (상)	Ⅲ. 소설의 수용과 창작-소설의 주제와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설에서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을 알고 작품의 수용과 창작에 적용할 수 있다.</li> <li>· 갈등의 양상을 파악하고 작품의 수용과 창작에 적용할 수 있다.</li> <li>· 구체적인 작품에서 갈등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주제를 찾을 수 있다.</li> </ul>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는 1950년대 전후소설의 허무주의적 작품 경향을 뛰어넘어 작가의 감정 개입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논리적인 문체와 액자소설의 양식을 통한 형식적 완결성의 추구 등으로 소설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것으로 평가되는 작품으로 이청준의 소설이 대부분 그렇듯이 이 작품 역시 당대의 역사적 의미나 이념적 성격을 문제 삼기보다는 인간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실존적 의미를 날카롭게 질문하고 있는 작품이다.

‘천재’ 문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이 소설은 ‘이 작품은 형과 동생이 소설 작품을 두고 일으키는 갈등 양상을 잘 형상화하였다. 서로 다른 상처의 원인과 양상을 통해 어떤 갈등이 드러나며, 그로 인해 작품 전체의 주

제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파악하면서 읽어보자'라고 제시하고 있다. 「병신과 머저리」는 한국 전쟁을 직접 경험하고, 그 아픔을 깊이 간직한 채 살아가는 형과 전후세대인 환부다운 환부를 갖고 있지 않은 관념으로서만 전쟁을 느끼며 무기력한 삶을 이어가는 동생 사이의 갈등을 통해 전쟁과 인간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아픔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소녀의 수술 실패를 계기로 돌연 병원 문을 닫고 매일 술을 마시다 소설을 쓰기 시작한 형과, 의지의 모습으로 신을 위협하는 인간의 얼굴을 그리고자 하나 윤곽이상을 그리지 못하는 동생으로 한 형제지만 다른 기질과 인생관을 지닌 두 사람은 강렬하게 부딪힌다. 이것은 형이 쓴 소설의 결말과 동생이 쓴 결말의 차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형은 자신이 쓴 소설의 결말을 동료 김일병을 쏘아 죽인 상급자 오관모를 직접 쏘아 죽임으로써, 현실과의 싸움에 적극적으로 맞섬으로써 소설 쓰기가 체험의 회고가 아니라, 자기 연민을 벗어나고자 하는 완벽한 재구성이었던 것이다. 반면에 동생은 형이 김일병을 죽이는 것으로 결말을 짓는다. 여기서 형과 동생이 현실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와 직결된다. 또한 동생은 형이 전쟁 체험을 소설 쓰거나 상급자 오관모와의 극적 상봉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동생의 상처와 고민은 근원을 알 수 없는 관념적인 것임을 깨닫고 참담함을 느낀다. 따라서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으로서의 '경험'과 '관념'이 작품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의 아픔은 어디서 온 것인가. 헤인의 말처럼 형은 6.25의 전상자이지만, 아픔만이 있고 아픔이 오는 곳이 없는 나의 환부는 어디인가. 헤인은 아픔이 오는 곳이 없으면 아픔도 없어야 할 것처럼 말했지만 그렇다면 지금 나는 엄살을 부리고 있다는 것인가. 나의 일은, 그 나의 화폭은 깨진 거울처럼 산산 조각이 나 있었다. (중략) 나의 아픔

가운데에는 형에게서처럼 명료한 얼굴이 없었다. - 「병신과 머저리」, 천재 p. 229.

## 【학습활동】

### <내용학습>

1. ‘병신’과 ‘머저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작품의 내용을 근거로 말해 보자.
2. 의사인 형이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소설의 내용을 바탕으로 말해 보자.
3. 소설의 결말을 김일병을 죽인 것으로 맺은 나(동생)의 결정과 아가씨가 싫어 떠난 사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말해 보자.(김 일병을 죽이는 것으로 결말을 맺은 것이 동생의 성격과 상황을 인식하는 데 있어 어떤 면을 말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고, 아가씨가 싫어서 떠난 이유도 거기서 찾아 연결시켜 보자)

### <적용학습>

1. 작품 전체에서 보면 화자인 동생에게서 떠난 아가씨가 형이 지닌 상처의 한 이유였던 오관모와 결혼한 사실에서 동생이 설정한 결론, 곧 형이 김 일병을 죽인 것으로 설정한 결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성립될 수 있겠는가? 있다면 무엇인지 발표해 보자.
2. ‘형을 지금까지 지켜 온 그 아픈 관념의 성은 무너지고 말았지만’에서 형에게 다시 일을 시작하지 못하게 했던 그 관념의 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던가 말해 보자.
3. 관념적인 것에서 생겨난 상처이든 현실적인 경험에서 생겨난 상처이든 간에 상처를 자유하고 극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 소설에서처럼 문학을 통한 상처의 치유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사례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해 보자.

### <창작 활동>

1. 결말이 완성되지 않은 형의 소설을 내가 완성한다고 하면, 그 결말을 어떻게 처리하겠는지 각자 써서 발표해 보자.

내용 학습 1번의 도움말로 교과서에서는 ‘병신은 육체적 장애를, 머저리는 정신적 장애를 지닌 인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어느 한 인물이 여기에 속할 수도 있고 각각 대응될 수도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학(구)교

과서 수록 참고문인 <작품 안으로>에서는 ‘형은 6.25전쟁의 체험을 생생한 아픔으로 지니고 있는 병신이고, 동생은 무기력하게 자신을 포기한 머저리’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같은 소설이 각각의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참고자료의 해설에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작품에 대한 정확한 감상을 통해 제목의 상징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서는 감상의 길잡이 노릇을 해야 하는데 문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병신과 머저리’는 참고자료에서 제시하는 것과 달리 모두 ‘나’를 지칭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교학(구) 출판사의 <학습보충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액자 형식과 서술 시점의 특징’에 대한 내용 가운데 ‘액자 소설은 이야기의 외부에 하나의 서술자의 시점이 설정되는 한편, 내부 이야기에서는 동생인 ‘나’가 다른 화자의 서술 시점을 대표하여 층위가 다른 서술 구조를 가진다.’는 해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작품의 외화 서술자는 동생인 ‘나’이며 내화에 해당되는 형의 소설 이야기는 형인 ‘나’에 의해 서술되고 있다. 이처럼 작품에 대한 쉬운 해설 대신에 애매모호한 해설은 오히려 학생들의 작품 이해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 소설은 두 인물간의 갈등 양상과 대립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상처의 깊이와 그것을 치유 극복해가는 과정, 즉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 중심에 두고 이해되어야 하는 작품이다. <학습활동>을 통해 그들의 상처와 갈등을 어떻게 치유해 나가는 지 살펴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주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창작활동>에서는 형의 소설의 결말을 학습자가 써 보는 활동으로 7차 교육과정의 특징 중 하나인 문학 창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 작품은 6.25로 인한 정신적 상처가 병의 원인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형과 상처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동생의 대립 갈등은 경험과 관념의 차이로 기인하지만 형은 소설 쓰기로 그것을 능동적으로 극복하고 ‘나’는 패배

감과 비애감만 짊어 가며 삶에 대해 반성적 계기로 삼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쟁이 전쟁 체험 세대와 전후 세대 모두의 아픔과 상처의 원인임을 개인의 차원에서 섬세하게 접근해 감으로써 추상성을 빠지지 않고 나름대로의 진실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는 이 소설은 전쟁은 누구의 잘못이 아닌 모두의 잘못이며, 거기에서 빚어진 비극들은 당연히 치유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2.1.3. 「나무들 비탈에 서다」

출판사	단원명	학습목표
문원각 (상)	Ⅱ. 소설의 수용과 창작 - 소설의 시점과 분체	· 소설의 시점과 그 효과를 이해한다. · 소설의 분체의 특징과 그 의의를 이해한다.

이 소설은 6.25전쟁의 극한상황에 의해 상처받은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이다. 한국 전쟁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장편소설로, 전쟁과 전후의 가혹한 현실을 비로소 정면으로 응시해 그것을 적어도 의식의 영역에서 극복할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작품의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sup>67)</sup> 6.25의 참상과 의미를 묻고자 한 본격 장편이 부재했던 상황에서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킨 첫 작품으로, 비탈에 선 나무처럼 시련과 위기에 처한 젊은이들의 삶을, 전쟁의 후유증으로 어떤 고통을 당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인간이 겪는 공포, 고독, 삶에의 본능, 상처 등을 상당한 수준의 리얼리즘적 성취를 통해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이다.

제1부는 전쟁이 마무리 되어가는 중동부 격전지를 배경으로 하여 전쟁에

67) 김병익, 『파탄의 시대와 구원의 가능성』, 문학사상사, 1986.

참여한 인물들이 체험하는 정신적 상처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2부는 1957년을 시대적 배경으로 전쟁의 피해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전쟁 참가들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후일담을 통해서 전쟁의 피해양상을 극복하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작품은 유리의 이미지로부터 시작된다. ‘문원각’ 교과서에는 소설의 첫 부분이 수록되어 있다. ‘유리’라는 투명하고 불안한 실체를 통하여 작중인물들의 불안감과 압박감을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전쟁의 극한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건 마치 두꺼운 유리 속을 뚫고 간신히 걸음을 옮기는 것 같은 느낌이로군. (중략)  
이 고요하고 거침새 없어 투명한 공간이 왜 이나지도 숨막히게 앞을 막아서는 것일까.  
(중략) 잠시나마 한 눈을 팔았다가는 지금 자기가 가까스로 헤치고 나가는 이 밀도 짙은 유리가 그대로 아주 국이 비러 영 움쭉달짝 못하게 될 것만 같았다. - 「나무들 비탈에 서다」, 문원각 p.231.

이 유리가 저쪽 어느 한 귀퉁이에서 부서져 들어오기 시작하면 걸잡을 새 없이 몽땅 조각이 나고 말테지. 그리고 무수히 날아 선 유리조각이 보조리 몸에 들어박힐 거라.  
- 「나무들 비탈에 서다」, 문원각 p.233.

이 장면은 전쟁에 참여한 동호의 의식세계를 내적 독백의 형식으로 묘사한 장면으로 전쟁의 파괴력이 외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어떻게 굴절되어 나타나는가에 초점을 두려는 작가의 의도를 보여준다. 수색작전 중 동호가 하는 위의 독백은 유리의 파편에 의해 앞으로 전개될 비극을 암시하고 있다. 유리의 압박은 동호뿐만 아니라, 늘 가해자임을 자처하는 현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동호의 자살이나 현대의 좌절은 전쟁이라는 상황이 인간으로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커다란 장벽임을 보여준다. ‘유리’의 이미지는 전쟁의 극한상황에서 느꼈던 불안감과 압박감을 응결시켜

놓은 실체로 전쟁의 현장을 벗어났다고 해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며, 유리로 인해 입게 된 상처는 계속된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 작품을 이해하는 가장 큰 핵심은 젊은이들의 삶이 전쟁이라는 이데올로기의 폭력 속에서 어떻게 파괴되어 가는가를 읽어가는 것이다. 이 작품은 황순원의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다양한 인물군을 형성하며 복잡한 관계로 얽혀들어 현실의 모습과 인간의 근원적인 모습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그러기에 학생들에게 전쟁의 비극성과 그 속에서 상처 입는 존재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읽기 중 학습 중 '인물지도'를 통해 인물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전쟁으로 인한 상처들이 어떻게 유지되며 치료되는지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소설의 학습목표는 전쟁 상황이 만들어 놓은 삶 속에서 전쟁을 겪은 인물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서에서처럼 학습목표를 시점과 문체를 이해해 보자고 제시했을 때,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구체성과 주제 의식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 【학습활동】

#### ▶감상하기 전

1. 이 소설의 제목을 '비탈에 서 있는 나무'라고 연관지을 때 이 소설의 내용이 어떠할지 예측해 보자.

#### ▶감상과 반응

1. 나무들 비탈에 서다를 감상하고 인물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자.
2. 소설에서 작가는 젊은이들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제목과 관련지어 이야기해 보자.

#### ▶목표 다지기

1. 시점의 효과 말해보자
2. 주인공 시점을 바꾸어 써 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3. 이 소설의 문체상 특징을 알아보고 문체가 갖는 의의는 무엇인가?

▶ 감상 넓히기

· ‘수난시대’의 인물과 이 소설의 인물의 전쟁의 상처에 대응하는 모습 비교하여 이야기해보자.

이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활동’은 학습목표와 관련되어 제시되지만, 교과서에서는 소설의 서두 부분에서도 일부를 수록함으로 <감상과 반응>에서 제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이 소설은 자살과 광란, 무기력으로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거나(동호, 선우 이등상사, 현태) 약삭빠른 행보를 취하거나 그 때문에 희생되는(윤구와 미란) 모든 인물들은 불가해한 운명의 돌기에 흡인당하거나 자신의 상처를 응시한다. 어떤 식으로든 순수함의 훼손을 겪고 상처를 입는다. 이 모든 것은 전쟁과 함께 좌절된 삶의 모습인 것이다. 수난의 구체적 상처들은 술집 여인이 된 옥주나 기생 세향, 동호의 애인으로서 현태의 아이를 가진 숙이도 그 비극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숙이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 비극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피력된다.

“선생님이 받으신 피해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큰 의미에서 이번 동란에 젊은 사람치고 어느 모로나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현태씨도 그중의 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두 또 그중의 한 사람인지 모르구요. 어쨌든 제가 이 일을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 외에는...” 소설 마지막의 이런 숙의 태도는 동호와 현태가 극복할 수 없었던 비극을 스스로 감당함으로써 극복해 보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전쟁의 일방적인 피해자라는 수난의식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였던 동호, 현태, 윤구가 아닌 숙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책임의식은 전쟁에 대해 모두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일 수 있다는

작가의 현실 인식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것을 중점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목표와 내용이 선별되어 수록되어야 할 것이다.

#### 2.1.4.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

출판사	단원명	학습목표
두산 (하)	V. 문화의 변동과 문학의 대응-시대 변화에 대한 감수성과 창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가의 현실에 대한 인식 이해한다</li> <li>· 핵심 갈등 요소 파악한다.</li> <li>· 소재의 상징적 의미 파악한다.</li> </ul>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라는 작품에서 박완서는 분단 시대의 냉전적 현실구조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위축시키고 황폐화시키는지를 극명히 밝혀 보여주고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박완서의 작품에는 한국전쟁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이산이나 분단시대의 모습이 작품 속에 잘 형상화되어있다. 이산이나 분단문제를 다룬 작품들에는 친척의 월북이나 친공 행위로 인해 연좌제로 신음하는 사람들, 자신의 탓줄을 묻은 고향을 가지 못하는 실향민의 아픔, 분단문제에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대처하는 사회 등이 나온다. 이들을 통해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약자의 위치에 있는 친공자의 가족들, 실향민들의 위치에서 사회라는 거대체제의 불합리한 점을 비판하기도 하고, 인간으로서 가장 자연스러운 혈육과의 관계가 단절당한 인간적 소외의 문제에 주목하기도 한다. 이 소설은 우리 사회를 족쇄처럼 움짱달짝할 수 없게 만들었던 냉전적인 사고방식인 연좌제를 비판하고 있다.

교과서 수록 부분은 아무런 문제도 겪지 않은 채 유지되던 한 가정에 한

국전쟁 때 의용군으로 나간 오빠가 간첩으로 내려온다는 사실 때문에 파경으로 향하게 된다. 전쟁의 그 후유증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에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고 문제를 발생시킨다.

근대화나 전쟁 등은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함께 겪고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대적 문제이며,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며, 그 어떤 시대에도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이 지고 있는 짐이 있으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조건들 그리고 많은 문제들 틈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살아간다. 한 개인의 아픔이 결국은 인간 전체의 문제이며, 그 시대의 문제임을 생각하면서, 이 소설을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

### 【학습활동】

1. 이 작품은 최초의 사건으로부터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대화 내용과 과거 회상이 중첩되어 있다. 이를 현재와 과거의 사건으로 구분하고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재정리해 보자.
2. 이 작품에서 ‘나’와 설희 엄마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고담함은 각각 어떤 것인가? 이를 두 인물이 공통으로 가진 문제와 개인이 가진 문제들로 구분해 보자.
3. 이 작품에서 제시된 ‘진창길’과 ‘틀니’가 암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4.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현실에 대한 작가의 시각은 무엇인가.

이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활동의 목표를 살펴보면, 이 작품은 사회적 모순이 개인적 체험으로 치환되어 제시된다. 그러므로 개인적 삶에 드러나는 사회적·역사적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작품에서 사용되는 소재는 단순히 소재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주제를 드러내는 상징성을 띠고 있으므로 작품의 줄거리가 전개되는 과정을 따라 가면서 ‘진창길’, ‘틀니’ 등의 소재가 상징하는 의미를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소설에서 주인공의 삶이 어떻게 그려졌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주인공

의 일생을 전체적으로 재구성해 보고, 그것을 삶의 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작품에 드러난 사건의 진행을 시간 순서에 따라 한 문장씩 정리해 보면, 그 속에서 사건의 원인이 되는 부분과 작가가 제시하고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소설의 사건 진행이 갈등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그러한 갈등의 원인과 진행, 그리고 결말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갈등의 해결 과정에서 드러나는 작가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자 이 작품의 결말을 새롭게 써 보는 활동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움짱달짝할 수 없으면서도 뽀뽀 뽀뽀 안고는 또 뽀 뽀할 것 같은 중압감과 동통이 여전하지 않은가? 이미 입속엔 빼버린 틀니도 없는데 -중량- 나는 비로소 깨닫는다. 여지껏 얼마나 교묘하게 이중 삼중으로 기만하고 있었나를. 내 아픔은 결코 틀니에서 기인한 아픔이 아니었던 것이다. - 「세상에서 제일 부거운 틀니」, 두산 p. 296.

‘나’는 도피성 띤 출국을 맹렬히 매도하며, 주체성이나 사대주의를 들먹이며 이면길을 거부하는 몸짓을 보이나 ‘나’의 본심은 ‘설희엄마’를 공항까지 배웅하고 돌아오면서 드러난다. 나는 ‘설희엄마’가 부러워서, 이 나라와 이 나라의 풍토가 주는 온갖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녀가 부러워서. 그녀에의 선망과 질투로 그렇게 몹시 아팠던 것이다. 결말에서 그녀의 아픔의 원인이 밝혀지면서 틀니가 주는 신체적 고통이 이복에 있는 오빠 때문에 받는 정신적 고통으로 형상화되면서 틀니가 주는 고통은 틀니를 빼면 되지만 오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해결 방법이 없음을 드러낸다.

### 2.1.5. 「엄마의 말뚝2」 (68)

출판사	단원명	학습목표
문원각	II. 한국 문학의 흐름	·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한다.
(하)	-광복 이후의 문학	· 분단 문학의 특징을 통해 작품의 주제를 안다.

박완서의 전쟁분단 소재의 작품들은 전쟁으로 인해 한 가족이 겪어내야 하는 상처와 혼란, 그리고 그것을 치유해 가는 과정을 그리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이런 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 「엄마의 말뚝2」이다. 이 작품은 1,2,3으로 연작되면서 불행했던 작가의 가족사를 자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 중 「엄마의 말뚝2」는 해방 후 좌익으로 활동하다 전향한 오빠가 6.25때 이웃의 고발로 체포, 의용군에 지원했지만 귀환하여 숨어 지내다 퇴각하는 인민군 군관의 총에 맞아 죽음에 이르게 된다. 오빠의 죽음에 대한 진상 공개가 아니라, 그 죽음 이후 살아남은 가족의 삶의 궤적을 드러내고 있다.

어머니는 늙어갈수록 아름다운 분이셨고, 부처님을 믿는 절로 어머니가 당한 남다른 참척의 원한을 거의 극복한 것으로 보였다고 말함으로써 오빠의 죽음에 관계된 비극성은 어머니와 ‘나’에게 외면적으로 회석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낙상 후 어머니가 수술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그들이 잊은 듯 치부했던 과거가 실제로 단지 기억의 한 꺼풀 밑에 숨겨져 있었음을 알게 된다. 어머니는 30년 전 오빠가 죽은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있었다. 그것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의식을 어머니의 환영을 통해 나타난다.

“군관동무, 군관선생님,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어머니의 눈의 푸른기가 애

68) 교학사(김)과 지학사(권)에서는 엄마의 말뚝1을 교과서에 수록하고 있다. 엄마의 말뚝 연작은 6.25의 비극과 분단 고통의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엄밀하게 분류하면 엄마의 말뚝1은 어머니의 강한 생활력과 교육열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논고에서는 분단소설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처럼 흔들리면서 입가에 비굴한 웃음이 감돌았다. 나는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고 있는 게 무엇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중략) “안된다. 이노움”이라는 호통과 “군관나오리. 군관선생님, 군관동무”라는 아부를 번갈아 하며 몸부림치는 서술에 마침내 링겔줄이 주사바늘에서 빠져버렸다. 혈관에 꽂힌 채인 주사바늘을 통해 피가 역류해 환자복과 시트를 점점이 물들였다. 피를 보자 어머니의 광란은 극에 달했다. “이노움, 게 셋거라. 이노움. 나도 죽이고 가거라. 이노움.” - 「엄마의 말뚝2」, 문원각 p. 231.

어머니의 가슴속에 오빠의 죽음은 깊숙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가족 상실의 아픔은 겉으로는 치유된 듯하지만, 그 뿌리가 무척 깊은 아픈 상처이다. 한국전쟁은 어머니에게 아직도 피를 흘리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였다. 어머니는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한풀이, 과거를 극복하기 위한 한풀이를 끝으로 화장을 선택한다. 30여년 전에 아들을 화장해서 강화도, 멀리 고향인 개풍군 땅이 보이는 곳에 뿌렸듯이, ‘어머니’ 자신도 그 뒤를 따르기를 소원한다. 과거와 맺은 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의 방법으로 저항한다.

어머니는 한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 한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이젠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그 후 삼십 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짓밖에 없는가?<sup>69)</sup> - 「엄마의 말뚝2」, 문원각 p. 235.

‘나’ 또한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으며, 어머니가 그랬듯이 그 짓을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다. ‘나’도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

---

69) 문원각(하) 235면.

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함께 그 비극을 경험했으며, 풀을 수 없는 이해와 공감으로 어머니가 바라는 그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행하려고 결심한다.

교과서에는 병원에서 어머니가 ‘나’에게 소원을 말하는 소설 마지막 부분이 수록되어 있다. 이 부분에서 드러난 이런 비극적 체험에 대한 극복의 의지와 모녀간 공감은 작가가 이제 한국 전쟁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한국전쟁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전쟁으로부터 기인했던 부정적 세계관에 포함되었던 지나친 가치 부정성도 해소된다.<sup>70)</sup>

### 【학습활동】

#### ▶ 감상하기 전

1. 이산가족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 ▶ 감상과 반응

1. 화장을 시켜 달라는 어머니의 말에 담긴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2. 마지막 대목에 ‘투병 중’이라고 말한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3. 엄마의 말뚝의 의미를 알아보자.

#### ▶ 목표 다지기

1. 대표적인 분단 소설 작품 찾아보기.

#### ▶ 감상 넓히기

1. 윤홍길의 ‘장마’를 감상하고 ‘엄마의 말뚝’의 주제와 비교해 보자.

이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엄마의 말뚝」은 어머니가 탈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한 후 유언을 딸에게 남기는 부분이 수록되어 있다. 이 수록 부분으로는 단원의 학습목표인 ‘분단 문학의 특징’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

---

70) 송병호, 「박완서 단편소설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0.

다. 또한 교과서에는 <도움자료>로 분단문학의 전개 양상을 '1950·60년대 분단문학은 작가의 직접 전쟁 체험을 통해 전쟁의 비참함, 고통 등을 드러내 보여주고, 1970·80년대로 접어들면 유·소년기의 간접 체험을 통해 전쟁의 상처와 아픔 등을 어린이의 시각으로 조명한다.'고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이 설명 또한 분단문학의 일부분만을 제시하고 있어 학생들이 분단문학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엄마의 말뚝」은 80년대 분단소설로 앞에서 제시한 설명과는 거리가 있다.

어머니의 병은 6.25전쟁 증후군 증상으로, 그 한이 어머니에게 여전하듯 우리 사회에도 여전한 아픔으로 치유되지 않고 있다. 우리도 사실 투병중인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가슴에 제거될 수 없을 정도로 못 박혀 있는 아들의 사무친 한으로 어머니의 삶은 오빠라는 말뚝에 묶인 삶이라 할 수 있다.

김윤식은 박완서의 전쟁 체험을 다룬 작품을 통해 작가의 일상적 삶의 감각을 조직화 하는 힘이 그대로 작품의 구성력으로 전이된다는 점과, 박완서의 문체가 문장의 결이나 그 정확성의 면에서 극히 부드럽고 분명하여 거의 흠이 없는 “천의무봉”이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대중성의 근거로 평가한다.<sup>71)</sup> 물론, 정호웅은 박완서의 전쟁과 분단소재의 작품들은 전쟁으로 인해 한 가족이 겪는 엄청난 상처와 그것의 치유과정을 그리는데 집중하고 있을 뿐이며, 작가는 경험의 직접성을 넘어야 하는데 박완서 문학에서의 6.25 전쟁의 체험은 ‘나’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시각의 한계성을 지니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sup>72)</sup> 그러나 소설가예의 경험은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혹은 의도적으

71) 김윤식, 「박완서론-천의무봉과 대중성의 근거」, 『80년대 우리 문학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1989.

72) 정호웅, 「상처의 두 가지 치유 방식-박완서 문학의 6.25체험 수용에 대하여」, 『작가세계』, 1991, 봄.

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박완서 문학은 그것이 하나의 큰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으므로, '나'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 2.1.6.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출판사	단원명	학습목표
한국 교육 미디어 (하)	V. 문화의 흐름과 문 학의 양상-가치관의 변 화와 문학의 다원화	· 산업화 시대 문학의 일반적 성격을 안다. · 산업화 시대 문학의 흐름과 그 양상을 이해한다. · 이 시기 세계 문학의 흐름을 이해하고 한국 문 학과와의 교섭 양상을 이해한다.

1980년대의 이산가족 찾기 운동으로 인해 더욱 관심이 고조된 이산가족의 아픔에 관한 이야기들은 소설 속에서도 나타났다. 소설가 박완서는 6.25를 몸소 체험하고 그 고통을 겪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산의 문제는 환상을 동반하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 조건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인간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 갈등을 겪게 된다. 이러한 상처와 치유 극복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 작품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소설은<sup>73)</sup> 외형상으로는 이산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피난길에서 어머니를 잃은 세 남매의 각기 다른 삶의 행로를 보여주고 있다. 작가도 이 소설은 이산문제로만 볼 수 없으며, 이 소설에서 우리의 이기주

73) 6.25 분단으로 인한 상처를 가족사적·개인적 차원에서 다루던 단계에서 벗어나 상이한 계층의 태도를 통해 사회적인 차원에서 다루기나(이경식, 「박완서 장편소설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1986.) 6.25전쟁과 관련하여 연구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허위의식에 가득 찬 인간의 모습을 다룬 작품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김보영, 「박완서 소설연구-주로 그의 현실비판의식을 중심으로」, 명지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의·물신주의를 그리려고 했다고 한다.

수지는 어린 시절 피난길에서 일부러 손을 놓아버린 동생 수인을 고아원에서 다시 만나게 되지만, 애써 외면해 버리고 오빠 수철 역시 이산가족 찾기 광고에 수인을 찾으면서 독지가인 양 행세를 한다. 이 둘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중산층의 자기중심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외형상 나타나는 수지와 수인(오목)이 사이의 숙명적인 가해 수난의 관계는 형제 갈등이라는 해묵은 문제의 변형된 국도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이를 분단 비극의 구체적인 상흔인 이산 문제에 대한 중산층의 자기중심적인 허위의식으로 연관짓고 있다.

이 작품에서 제기하는 이산 및 재회의 모티브는 분단 현실 속에 뒤틀리고 마비된 휴머니즘과 산재하는 형제갈등의 비극이 얼마나 뿌리 깊고 정정하기 어려운 것인가에 대한 비판적 이해인 셈이다.

이 소설은 교과서에서 동생(수인)이 죽는 결말 부분으로 6.25 전쟁 중에 헤어졌던 자매가 다시 만나 겪는 갈등과 애정이 드러나 있는 작품으로 전쟁의 비극이 인간의 삶에 미친 의미를 생각하며 감상해 보도록 선정되어 수록되어 있다.

그 거울은 결국 나만의 것이었어. 그 거울이 없었던 사람하고 어찌 그 거울의 죄과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랐던고. 수지는 처음으로 그 거울에 저지른 죄와 그 죄의식 때문에 떠맡게 된 온갖 근심을 자기만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이 자기만의 것이라고 생각되자 근심조차 소중했다. - 「그해 거울은 따뜻했네.」 p.282.

자기 죽은 후 자기 어린 자식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누구를 믿는다는 건 동기간에도 여가 우애 있는 동기간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난 하필 죽도록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한 언니에게 그런 길 느낀 거야. 언니.

수인은 수지에게 어릴 때 헤어지기 전 수지가 그녀에게 건네준 은노리개를 죽음의 문턱에서 전해준다. - 「그해 거울은 따뜻했네.」, 한국교육미디어 p.285.

동생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용서를 비는 수지와 자기의 자식을 부탁하며, 자신이 이제껏 지냈던 은노리개를 다시 수지에게 수인이 돌려줌으로써 그들의 갈등은 해결되고 용서가 이루어진다.

### 【학습활동】

1. 이 작품에서 주인공 수지가 친동생으로 밝혀진 오복이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정리해보자.
2. 이 작품을 분단 상황으로 인해 고통 받는 이산가족 문제와 중산층의 허위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자.

이 소설을 읽고 전쟁의 비극이 인간의 삶에 미친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작품이 선정되었다고 제시가 되어 있지만, 교과서에 언급한 ‘학습활동’만으로는 부족하다. ‘학습목표’와 관련된 ‘학습활동’과 ‘참고자료’를 다양하게 수록되어야 할 것이다.

냉정한 시각에서 보면, 사람들 사이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어떤 불가항력적인 운명보다는 다분히 의도적인 회피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이 작품에서 수지와 수인의 이산은 급박스러운 전쟁 상황에서 비롯되기도 하였지만, 수지의 미묘한 경쟁심과 질투심, 이기심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작가는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겪게 된 고통, 중산층의 허위의식을 주된 주제로 다루어 왔다. 이 작품 역시 전쟁으로 인해 헤어져야 했던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 전쟁이 가져다 준 상처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혈육마저 냉정하게 버리려는 중산층의 이기심과 허위의식에 대한 비판을 바탕에 깔고 있다. 작가는 중산층 특유의 이기심과 개인주의가 결국 분단 상황을 고착

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주제 의식을 전하고 있는 셈이다.

### 2.1.7. 「어둠의 혼」

출판사	단원명	학습목표
두산 (하)	VI. 한국 문학의 발전과 가치화-통일에 대비한 한국 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 민족 문학으로서 한국 문학이 나아갈 바를 모색한다.</li> <li>· 세계 문학으로서 한국 문학의 가치를 이해한다.</li> <li>· 한국 문학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li> </ul>
대한 교과서 (하)	VI. 문학의 가치화와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 활동을 하면서 문학 문화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li> <li>· 통일 문학, 세계 문학과 관련하여 한국 문학의 가치를 찾고 계승·발전시키는 태도를 지닌다.</li> </ul>

「어둠의 혼」은 의식의 흐름 수법으로 서술된 소년의 내면세계는 지나치게 솔직할 정도로 ‘배고픔’이라는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에 대한 서술과 ‘수수께끼’로 압축된 아버지에 대한 의문이 겹치면서 당대 사회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짚어내고 있는 작품이다.

제7차 고등학교 『문학』 과목의 내용 체계는 크게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창작’, ‘문학과 문화’, ‘문학의 가치화와 태도’로 설정되어 있다. 그 중 ‘문학의 가치화와 태도’는 ‘문학의 가치 인식’, ‘문학 활동에의 능동적 참여’, ‘문학에 대한 태도’로 구체화된다.

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문학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보면, 문학교육이 학습자의 전인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발전시켜 ‘문학에 대한 태도’ 영역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설정하고 있다. ‘통일 문학, 세계 문학과 관련하여 한국 문학의 가치를 찾고 계승·발전시키는

태도를 지닌다.’

이 내용은 한국 문학의 가치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기쁨으로써 통일 시대와 세계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 선정하고 있다. 18종 교과서 중 ‘문학의 가치화와 태도’라는 단원에 구체적인 분단소설을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두산’, ‘한국교육미디어’<sup>74)</sup>, ‘천재’<sup>75)</sup>, ‘대한교과서’이다. 특히, ‘두산’과 ‘대한교과서’에서는 분단 김원일의 「어둠의 혼」을 공통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단원에서 「어둠의 혼」은 ‘나’와 아버지의 대화의 일부분만이 수록되어 있어 ‘통일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의 가치를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전쟁으로 인한 대표적인 파괴의 시작은 바로 일상생활의 기반인 가족 공동체의 붕괴에서 비롯된다. 유년기 성장소설에서 보이는 대표적 가족 붕괴의 모습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상황이다.

「어둠의 혼」은 해방 직후부터 6.25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좌우익의 갈등이 심했던 시기를 시간적 배경으로 한 가족이 파멸하는 과정을 묘사하여 분단의 비극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소설은 비극적인 동족상잔의 비극을 순진한 소년의 시각을 통해 제시하면서, 삶의 과정에 수반되는 고통과 좌절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묻고 있다.

김원일은 분단문제를 다루면서, 해방 정국의 좌우 대립으로까지 시야를 확대하고, 민족 내부의 오랜 갈등에서 분단의 원인을 찾는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작가 중의 한 사람이다.<sup>76)</sup> 그의 작품 중 「어둠의 혼」은 작가의 자

74) ‘한국교육미디어’에서는 윤홍길의 ‘장마’에서 두 할머니의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수록하여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문학이 지향해야 할 바를 토론하도록 설정하고 있다.

75) ‘천재’에서는 이호철의 ‘달아지는 살들’의 작품을 통해 실향민의 정서를 느껴 봄으로써 현재 우리의 분단 상황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76) 강진호, 「탈분단을 위한 마음의 감옥 열기-냉전 이데올로기와 문학의 지평」, 「탈분단

서전적인 작품이다.

주인공 갑해의 아버지는 일본 유학을 다녀왔을 정도로 학식이 깊은 좌익 활동가이지만, 그의 가족들에게 아버지는 보리쌀 하나 빌려오지 못할 존재일 뿐이다. 갑해의 관심은 오로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아버지가 지서에 잡혀서 총살을 당할 거라는 소문을 듣지만 갑해는 무덤덤할 뿐이다. 즉, 아버지의 죽음보다 더 큰 괴로움은 굶주림이기 때문이다. 배고픔에 비해 이데올로기는 어린 소년에게는 알 수 없는 수수께끼의 세계이다.

작가는 갑해가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른다’라는 태도를 취하여 이데올로기에 대한 작가의 인식 드러내기를 꺼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워하고 증오했던 아버지였으나, 어린 갑해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달라진다. 물음표를 던져 주었던 아버지의 삶과 죽음을 이해하는 것이 갑해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하는 것인지 작가는 마지막에 그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어린 아이의 시점으로 진행되므로 당시의 상황을 본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객관적인 입장으로 우리의 비극적 역사를 돌아보게 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어린 나에게 너무 어려운 수수께끼를 남기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길지 않은 일생을 더듬을 때, 나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쪼들려, 두려움과 함께 어떤 깨달음이 내 머리를 세차게 친다. 그 느낌은, 살아가는 데 용기를 가져야 하고 어떤 어려움과 슬픔도 이겨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안개 저쪽같이 신기한 세상, 내가 알아야 할 수수께끼가 너무 많은 이 세상을 건너갈 때, 나는 이제 집안을 떠맡은 기둥으로 힘차게 버티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결심이 내 가슴을 적신다.<sup>77)</sup>

---

『시대의 문학 논리』, 새마, 2001, 95면.

이념 문제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린 소년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용기나 신념 등을 깨달으며, 성숙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물론 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져다준다고 해서 '현실 극복 방법'을 중심으로 이 소설을 학습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은 이 소설의 가치에 잘못 접근하는 것이다.

이 소설의 교과서 수록 부분의 내용은 아버지의 따뜻한 추억부분이 수록되어 있다.

아버지 그림 나중에는 하늘에 닿겠네요. 아니지. 하늘에 닿아보려고 뛰지만 결국 하늘에는 닿지 못하지. 왜냐하면 하늘은 끝이 없으니까. 그림 죽을 때까지 뛰겠네요? 그렇지, 죽는 날까지 날마다 뛰지. 참 불쌍한 놈이네요? 아냐, 자기가 뛰고 싶어 뛰니깐. 왜 떨까요? 뛰는 그 일이 즐거울 때는 아무도 못말려……그러나 사람은 최종의 목표를 세워두고 뛰지.- 「어둠의 혼」, 두산, p. 370.

여기서 작가는 아버지를 청개구리와 같은 존재라고 인식한다. 남한 체제 속에서 사회주의자인 아버지는 청개구리와 같은 존재일 수 있다. 여기서 아버지는 악의 존재가 아니라, 청개구리는 자신이 추구하는 길이 결국에는 좌절로 끝날 것임을 예감하면서도 그것이 이상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슬픈 존재로 묘사됨을 알 수 있다.

닭과 달걀이 누가 먼저 생겼냐란 질문엔 모른다가 답이야. 닭이 먼저 낳는다는 것도 틀리고, 달걀이 먼저 낳는다는 것도 틀리고, 오직 모른다는 것만이 백점이야. 너두 차츰 자라면 알게 되겠지만, 이 세상은 수수께끼란다. 모른다는 것이 맞는 답이 참 많거든.<sup>77)</sup>

77) 김원일, 「어둠의 혼」, 『제3세대 한국문학』 6, 1983, 삼성출판사, 281면.

국민학교 이학년 때던가. 나는 아버지와 산책을 나갔던 적이 있었다. 안개도 자욱한 초여름의 새벽이었다. 이슬에 바짓가랑이를 쫄딱 적신 채 아버지와 나는 들길을 거닐었다. 아버지는 나의 손을 잡았고, 잠으로부터 트이기 시작하는 나의 귀는 종달새의 자랑스러운 재잘거림을 듣고 있었다. - 「어둠의 혼」 대한교과서 p.337.

‘나’의 의식 속의 아버지는 친절하고 자상한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나’를 미지의 세상으로 안내한 존재였으며, 아버지 자체가 ‘나’에게는 미지의 존재였다.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댕다던 청개구리의 높이뛰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하는 물음에 때로는 ‘아무도 모른다’가 답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준 존재였다.

세상에는 ‘어느 게 옳고, 틀린지 정답을 모르는 일’이 있으며 ‘제가끔 하는 일만이 옳은 일이라며 열심히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러나 이런 아버지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나’는 아버지가 하는 일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알고 싶어한다. 이처럼 미지의 존재였던 아버지를 확실히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죽고 난 후가 된다.

이 소설은 항상 비인간적이고 악한 성격으로 우리 소설에 등장했던 좌익 활동가와는 다른 모습이 연출된다. 즉, 아들에게 삶의 의미를 깨우쳐 주려 했던 따뜻하고 지적인 아버지로 등장하는 것이다. 따뜻하고 지적인 아버지가 왜 죽음을 무릅쓰고 그 일을 했을까 하는 물음을 던져 줌으로써 이념 갈등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도록 만든다.

### 【학습활동】

---

78) 김원일, 위의 책, 269면.

<두산>

1. 청개구리 이야기를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했던 바는 무엇인지 말해보자.
2. 이념의 갈등이 우리 민족에 미친 영향을 생각하며 남북한 화해의 실마리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3. 남·북한은 분단 후 반 세기에 걸쳐 단절된 생활을 하면서 문화면에서도 이질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그 예를 찾아 정리해 보자.

<대한교과서>

1. 이 작품은 어린 화자의 시점을 통해서 분단의 현실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시점은 작품 내에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2. 오늘날 남북 분단의 상황을 다루어 문학 작품을 창작하려 한다면 어떤 재제를 취해야 하는가. 남북 정상 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작품을 구상해 보자.
3. 세계 문학의 일원으로서 한국 문학이 '분단과 통일'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떤 의의가 있는지 토론해 보자.

‘대한교과서’ 1번 활동은 ‘분단과 그 극복’이라는 주제를 분단 상황에서 형상화할 수 있기 위한 작가의 노력을 이해하도록 설정되었다.

작가는 6.25전쟁과 이데올로기 대립에 관한 객관적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을 것이고, 따라서 순진한 어린 아이를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가치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또한, 이 소설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인 ‘시점’의 문제를 이해함으로써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정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번 활동은 남과 북의 문화적 이질성을 바로 이해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가운데 통일을 지향하는 문학 작품을 창작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고 있다.

3번 활동은 ‘통일 문학, 세계 문학과 관련하여 한국 문학의 가치를 찾고 계승·발전시키는 태도를 지닌다.’라는 학습목표에 적합한 활동이다.

### 2.1.8. 「나목」

출판사	단원명	학습목표
민중서림 (하)	IV. 문학 문화의 발전- 문학의 인접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의 틀 안에서 문학이 다른 영역과 맺는 관계를 이해한다.</li> <li>· 여러 영역의 정신 활동을 문학의 관점에서 해석한다.</li> <li>· 문학과 다른 영역의 정신 활동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지닌다.</li> </ul>
블랙박스 (하)	VII. 문학의 인접영역-문 학과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과 다른 예술 장르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이해한다.</li> <li>· 문학의 관점에서 인접 예술을 감상하고 예술적 주제가 문학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이해한다.</li> </ul>

이 소설은 박완서의 등단 작품으로 6.25전쟁과 분단이 일차적인 작중 현실을 이루며, 작품 전면에 등장하면서 여러 인물들의 성격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진 정신을 갖게 된 사람들이,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치밀한 묘사로 그려낸 장편 소설이다.

폭격으로 인한 두 오빠의 죽음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 느끼는 이경과 전쟁으로 인한 생활난 때문에 미군 PX에서 초상을 그리는 옥희도가 그 인물들이다. 경아는 이러한 황량함을 평범한 여인의 일상생활로 되돌아가면서 극복하게 되고 옥희도는 잠시 성장을 멈추고 어려운 한 시기를 극복하는 나목을 그림으로서 시대적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킨다. 작가는 전쟁 속에서도 참다운 삶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생동하는 욕망을 포착하여 전쟁이 인간다움을 지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블랙박스’와 ‘민중서림’에서는 공통적으로 ‘문학의 인접영역’에 소설의 마지막 부분인 ‘옥희도가 그린 그림을 ‘나’가 화랑에서 다시 보고 ‘고목’이 아

년 ‘나무’임을 깨닫게 되는 부분과 ‘박수근’의 ‘나무와 두 여인’의 그림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 단원에서는 문학과 다른 예술 장르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문학의 관점에서 인접 예술을 감상하고 예술적 주제가 문학으로 변환되는 과정 이해를 ‘학습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 소설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환경 속에서 예술에 대한 탐구가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 하는 것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화가 박수근을 모델로 하고 있는 이 작품은 한국 전쟁이 터진 이듬해 겨울, 서울이 막 수복된 직후를 배경으로 초상화 가게에서 일하는 화가를 통해 예술적 삶 사이의 갈등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는 일종의 예술가 소설이다.

한 화가의 고통스러운 삶이 배어든 그림 한 장이 인상적이면서도 상징적으로 다루어진다.

### 【학습활동】

#### <민중서림>

1. 문학과 예술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며 작품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소설 ‘나무’와 그림 ‘나무와 두 여인’에서 받은 느낌을 비교해 보자. 그리고 그 그림이 소설 창작의 계기가 되었다면 어떤 점 때문이었을지 말해 보자.
2. 그림 ‘나무와 두 여인’을 보고 인물과 사건을 상상하여 이야기로 꾸며 보자.
3. 문학과 미술이 서로 관련을 맺는 양상을 더 찾아보자. 그리고 서로 다른 갈래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통하게 되는 계기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자.
4. 문학과 다른 예술 갈래의 사조를 비교해 보자.

#### <블랙박스>

1. 이 소설의 주인공은 화가 ‘박수근’을 모델로 한 것이다. ‘박수근’의 경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소설에서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그 화가의 어떠한 삶에 대한 것인지 생각해 보자.
2. 고뇌 어린 예술가의 삶을 부각시키기 위해 주인공은 자신의 남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

는지 말해 보자.

3. [토의토론]- '박수근'의 그림에 나오는 나무와 여인의 이미지와 이에 대해 소설에서 묘사한 부분을 서로 비교해 보자. 소설 속의 묘사가 그림의 어떤 특징들을 연상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각자 생각해 보고 그에 대해 토론해 보자.

'토의·토론활동'은 이 단원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예술의 다른 영역과 문학 영역의 접합지점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즉, '박수근'의 그림에서 학생들이 느낀 바를 말하도록 하고, 묘사된 부분과 비교해 보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이 소설은 작가가 이 소설에서 '나무'를 그리는 화가를 왜 등장시키고 있고 '나무'와 '고목'의 의미가 무엇인지 학생들이 파악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 전쟁을 겪었던 예술가들의 삶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의 내용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영역까지 확대시키는 것은 학생들의 작품 감상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작품 내용 파악이 먼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문학과 다른 예술 영역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 단원에서는 미술, 음악 분야에 거쳐 문학적 영향 관계에 나타난 작품들을 읽어 보면서, 각 장르가 다른 장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나무와 두 여인'이란 그림에 대한 감상은 소설의 줄거리와 엮이면서 한국 전쟁 이후의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인생과 예술의 깊은 상호관계를 해석해 보여준다. 미술 작품 하나가 소설 전체의 이야기와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고, 미술과 문학이 서로 어떻게 예술적인 깊이 속에서 만나게 되는지 느껴 볼 수 있게 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 2.2. 교과서 분단소설의 문제점

교과서 수록 분단소설 23편 중 본고의 논의에 적합한 8편을 선정하여 ‘학습목표’와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해보면, 교과서 분단소설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할 수 있다.

첫째, 23편의 작품 중 장편소설에 해당하는 「광장」, 「나무들 비탈에 서다」, 「나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단편소설에 해당한다. 그러나 18종 교과서에 전체적으로 수록한 단편소설이 한편도 없다. 단편소설마저도 부분적으로만 실고 전체적인 줄거리를 제시하고 있어, 작품 전체를 감상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소설 작품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보완되어야 할 문제이다.

앞에서 살펴본 모든 작품이 일부분을 실고 있지만, 특히 「어둠의 혼」은 ‘나’와 아버지의 대화의 일부분만이 수록되어 있어 학생들이 이 작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경우 작품 자체의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전체적인 내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목표인 ‘통일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의 가치 이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둘째, 학습목표에 적합한 부분이 교과서에 수록되어야 하며, 학습목표는 그 작품의 특징과 주제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나무들 비탈에 서다」의 작품을 이해하는 가장 큰 핵심은 젊은이들의 삶이 전쟁이라는 이데올로기의 폭력 속에서 어떻게 파괴되어 가는가를 읽어가는 것이다. 이 작품은 전쟁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인물군을 형성하며 복잡한 관계로 얽혀들어 현실의 모습과 인간의 근원적인 모습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소설의 학습목표는 전쟁 상황이 만들어 놓은 삶 속에서

전쟁을 겪은 인물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서에서처럼 학습목표를 시점과 문체를 이해해 보자고 제시했을 때,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구체성과 주제 의식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작품 수록 내용과 학습목표에 적합한 학습활동이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그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수록하여 정확한 감상의 길잡이 노릇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다」의 경우 이 소설을 읽고 전쟁의 비극이 인간의 삶에 미친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작품이 선정되었다고 제시가 되어 있지만, 교과서에 언급한 학습활동은 학습목표에 정확하게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

「엄마의 말뚝」에서도 ‘분단문학은 6.25전쟁에 의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분단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창작된 문학 작품’이라고만 언급하면서 분단문학의 대표적인 소설 작품을 찾는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과서 <도움자료>로 분단문학의 전개 양상을 간략하게 단편적으로만 언급하고 있어서, 학습자들의 작품 이해에 오히려 오해의 소지를 드러낸다.

「병신과 너저리」에서는 같은 소설이 각각의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참고자료>의 해설에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작품에 대한 쉬운 해설 대신에 애매모호한 해설로 학생들의 작품 이해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가 학생들의 작품 감상을 방해하고 있을 정도로 무성의한 해설을 실어 놓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넷째, 문학 교재의 작품들은 어떤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교과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자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문학작품에 대한 감상을 유도하기보다 문학 작품에 대한 분석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다. 작품 수용의 종합과 내면화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텍스트가 구체화되고, 그것이 문학적인 패러다임에 적용되어야 가능한 것인데, 분석에 그침으로써 문학적인 구체성을 상실하고 있다.

## V. 교과서 분단소설의 방향

지금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단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분단문학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문학교육의 방향을 정립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문학 작품을 소재로 본격적인 문학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문학 교과서의 체재, 작품 수록 양상 등을 살펴보는 것은 문학 교육의 의도와 현재의 교육적 현황을 살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래서 장기적인 문학교육의 지향점을 파악하고, 교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문학교육의 실천을 예측하며, 문학교육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제IV장에서 본고의 논의에 적합한 분단소설을 몇 작품 선별하여 비판적 검토를 해보았다.

7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최근 들어 급격히 고조된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이다. 6차 교육과정에 비해 7차 교육과정 분단소설은 다양한 작품이 대거 수록되었다고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어떤 출판사의 교과서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분단소설의 폭은 달라진다. 즉, 특정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소수의 소설 작품으로 현재 문학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학교마다 1종 『문학』 교과서만 의존하는 수업으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인식 확장의 분단소설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수준 높은 소설 작품들을 전범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소설 독서를

확대시킬 수 있는 역할을 교과서가 해야만 하기 때문에 문학 교과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소설교육의 방향 전환을 위해서 현행 『문학』 교과서 안의 분단소설 작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작업을 해보았다.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제V장에서는 교과서 수록 분단소설의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분단소설의 새로운 작품 선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교과서 편찬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문학 교육이 지녀왔던 가장 큰 문제는 작가와 작품의 편향성이었다. 이것은 교육이 제도적인 장치나 사회의 주도적 이데올로기의 강한 억압을 받아 온 사실에 기인한다. 학교가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체계화하며 널리 확산시킨다는 점<sup>79)</sup>에서 보면, 이는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의 수록 분단소설 23편 중 6차 교육과정의 수록 분단소설과 동일한 작품이 14편으로 교과서들이 지금까지 다루지 못한 작품에 대해 인색한 것을 살펴 볼 수 있었다. 50·60년대의 작품들은 거의 동일한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과거에 아무리 좋은 작품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분단소설이라도 오늘날의 관점에서 재검증 받아야 하고, 엄격하게 가려져야 할 것이다.

물론 70년대 이후의 작품들이 새로 수록되었지만, 7종(두산, 문원각, 한국교육미디어, 대한교과서, 민중서림, 지학(권), 교학(김)) 교과서에 한정된다. 또한, 현대 월북 작가나 남북 작가에 대한 규제가 철회된 이후에 편찬된 『문학』 교과서들이 지금까지 다루지 못한 작가들의 작품에 대해 인색한

---

79) 김용일, 「자본주의 사회의 국가와 교육」, 『한국교육문제연구 2집』, 푸른나무, 1989. 25면.

것은 문학 교육의 목표인 ‘삶의 총체성 이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한 작가의 작품들이 편중되는 경우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분단문제는 우리 민족의 쉽게 회복 되지 못하는 큰 상처이며, 그 상처는 여전히 치유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문학의 가장 중요한 소재로 많은 작가들이 새로운 분단인식과 객관적인 역사의식으로 분단 해결방안 모색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과서 분단소설은 50년대에서 80년대까지의 작품을 선정하여 수록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90년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발표되는 다양한 작가들의 다양한 분단소설의 교육적 의의를 검토하여 현시점에 맞게 분단 극복의식을 주제로 하는 작품을 선정하여 수록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습자의 입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도 문제이다. 현재의 『문학』 교과서는 좋은 작품을 골라 주고, 그에 관한 안내와 활동 과제를 충실하게 제시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과서를 일종의 자료집으로 보고, 문학 수업 역시 텍스트 읽기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활동 중심의 교과서를 제시하기도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와 문제점은 나타난다.

새 문학 교과서들은 교육과정에 제시했던 ‘열린 교재관’을 지향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교과서에 실린 문학 작품을 배우는 것보다 제재를 자료로 하여, 교육 내용을 배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론 영역에서는 작품을 문학의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는 예증자료로 활용하고 작품을 대상 자료로 하는 실제 영역에서도 작품 자체의 이해와 감상을 위한 활동보다는 작품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학 활동을 전개하는 쪽으로 문학 작품의 쓰임새가 달라졌다. 이 때문에 새 교과서에는 작품의 전문보다는 일부분만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짧은 시도 두세 줄 정도의 일부분만

을 인용하고 심지어 소설조차 몇 줄만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sup>80)</sup>

소설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학습자들에게 작품을 직접 읽히는 일이다. 소설 텍스트의 경우에는 특히 분량이 문제가 된다. 물론 『문학』 교과서 수록 소설은 대부분 전면을 실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분단소설 또한 분단 문제를 형상화한 다양한 작품을 접할 수 없고, 단편소설마저도 부분적으로만 실려 있어 작품 전체를 감상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작품의 일부만을 발췌했을 때, 전체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물론 장편소설의 경우 분량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단편소설의 경우도 전면을 수록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대해 스스로 진문을 찾아 읽고 학습 활동을 하도록 하는 교과서가 있는가 하면, 전체 줄거리를 주는 교과서도 있고, 교과서에 제시된 부분을 뺀 나머지만의 줄거리를 주는 교과서도 있다. 혹은 아예 전체와 관련된 활동이 없는 교과서도 있다. 또한 ‘학습활동’에서는 학습자가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 이해가 가능할 때, 이루어 질 수 있는 문제가 수록되기도 한다. 원칙상 첫째 방안이 이상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육 현실에서 그것이 통할지는 의문이다.

단편소설보다는 장편소설이 사람의 총체성을 더 잘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단편소설보다는 장편소설을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정된 교과서의 지면관계로 장편소설은 전체를 수록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다. 교과서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소설 작품을 소개한다는 측면에서, 부분적인 수록을 할 때는 단편소설보다는 장편소설을 많이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소설의 경우 전면이 수록되지 못한다는 전제를 인정하고 있지만, 문제는

---

80) 본고에서는 7차 문학 교과서의 분단소설 수록 현황에서는 소설의 일부가 아주 간략하게 몇 줄 언급되어 있는 경우나 다른 문학 작품의 학습 활동과 관련하여 일부 언급되어 있는 것은 본고의 논의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외시켰다.

작품의 어떤 부분을 교과서에 수록하느냐이다. 대부분의 소설 작품은 시작 부분이나 결말부분을 수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작품의 일부분만이 선택되어 수록될 경우 작품의 특징이나 작가의 주제의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수록되어야 한다.

그러나 같은 작품이지만, 각 교과서간의 수록부분에도 차이가 있었다. 물론 작품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부분을 찾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교과서에 수록될 작품은 교육적 의의가 전제된다고 볼 때, 각 작품의 문학사적 특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을 선택하여 수록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작품 이해를 돕기 위해 장편의 경우 보다 많은 부분의 수록이 요망된다. 중요부분을 발췌·수록하여 좀 더 많은 부분을 수록하도록 해야겠다.

이것은 학습목표 설정과도 중요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학습목표에 적합한 부분이 교과서에 수록되어야 하며, 학습목표는 그 작품의 특징과 주제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나무들 비탈에 서다」의 작품을 이해하는 가장 큰 핵심은 젊은이들의 삶이 전쟁이라는 이데올로기의 폭력 속에서 어떻게 파괴되어 가는가를 읽어가는 것이다. 이 작품은 전쟁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인물군을 형성하며, 복잡한 관계로 얽혀들어 현실의 모습과 인간의 근원적인 모습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소설의 학습목표는 전쟁 상황이 만들어 놓은 삶 속에서 전쟁을 겪은 인물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서에서처럼 학습목표를 시점과 문체를 이해해 보자고 제시했을 때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구체성과 주제 의식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나무들 비탈에 서다」를 마무리하는 대목을 수록하여 전쟁이 가져온 피해당한 삶의 진지한 성찰의 단계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소설 마지막 부분에서 성찰을 통해 비극을 자기화하려는 인물을 제시하여, 피해당한 삶의 진지한 성찰의 단계는 이미 수난의 상태에

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며, 모두가 수난자였다는 사실과 자기에 부여된 현실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반성이 용해되어 있다. 이 반성의 요소야말로 「나무들 비탈에 서다」가 가진 전쟁의 비극에 압도당한 수난자의 전쟁체험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셋째, 작품 수록 내용과 학습목표에 적합한 학습활동이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그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수록하되 정확한 감상의 길잡이 노릇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작품에 대한 해설이나 도움말을 수록 시 학생들이 그 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수록되어야 한다. 같은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각각의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나 해설의 차이를 보이거나, 작품에 대한 쉬운 해설 대신에 애매모호한 해설은 지양되어야 한다. 즉, 작품의 감상과 이해에서의 도움이 되지 않는 교과서의 작품해설에 대한 적절한 검증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학습목표와 관련된 학습활동과 그 작품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를 다양하게 수록되어야 할 것이다.

문학 교육은 과학적인 사고나 수학과 같은 원리나 개념 등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부의 복합적이고 미묘한 사고 작용을 변화시키는 것이기에 독자에게 감동을 주어 정서 순환과 가치관 고양에 의해 인격 도야를 꾀하려는 내면화 과정의 매체 역할을 하는 교재이어야 하며,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고 학습자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교과서의 작품 해설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분단에 대한 다양한 문제의식을 지닌 작품을 선별하여 꼼꼼히 읽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참다운 소설교육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7차 교육과정에서는 수용자 중심의 문학교육을 통한 가치 교육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문학 작품 자체의 내용을 수용하는 것에서 그

치지 않고 수용 결과를 자신의 삶으로 전이시켜 학습자의 삶의 지평을 확대시키는 가치 지향의 문학 교육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특히 ‘문학의 가치화와 태도’의 ‘문학에 대한 태도’ 영역에서 ‘통일 문학’을 설정해 두고 있다. 이 내용은 한국 문학의 가치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기쁨으로써 통일 시대와 세계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18종 교과서 중 ‘문학의 가치화와 태도’라는 단원에 구체적인 분단 소설을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두산’, ‘한국교육미디어’, ‘천재’, ‘대한교과서’로 4종뿐이다. 이 4종 『문학』 교과서에도 이 단원을 통해 학생들이 분단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분단이라는 역사적 현실로 인한 문학의 이질화를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여 통일 문학을 수립하는데 역부족이다. 대부분의 분단소설은 ‘소설의 수용과 창작’ 단원과 ‘한국 문학의 흐름’ 단원에서 다른 소설 작품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단원을 설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작품을 교육하는 것은 ‘통일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단원을 따로 설정하여 학습자들의 분단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통일 시대와 세계의 시대에 효과적으로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문학』 교과서를 통해 남북한 문제가 이데올로기 대립에서 탈피하여 통일 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이 당대 안고 있는 문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이 통일이다. 어느 교과서를 막론하고 이 부분을 기초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문학 교과서는 북한의 문학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쓰여지고 있는 문학사들이 북한의 문학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교과서에서도 어느 정도는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분단의 궁극적 지향이 분단 극복이며 분단소설을 교육하는 이유도 분단 극복이다. 그러므로 교과서 수록 분단소설의 주제는 분단의 극복으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물론 시대별로 분단을 다룬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전쟁의 양상을 다루거나 전쟁의 상처를 통해 시대를 고발하는 작품도 수록되어야겠지만, 이러한 분단소설이 교과서 분단소설의 주류가 되기보다는 분단의 극복을 주제로 하는 분단소설이 중심으로 수록되어야 한다.

분단의 극복을 논의할 때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남·북한의 이질성 문제이다. 통일을 지향하는 이 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오래 시간 동안 다른 이념적 체계로 남·북한의 이질성 문제는 심각한 정도라 할 수 있다. 양분된 남북의 문화적 공통분모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등학생들이 분단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현재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할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 소설 작품이 교과서에 실린다면 북한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90년대 북한문학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통일문제를 다루는 작품들은 남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당위적 차원에서 통일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통일문제를 다루는 작품들은 이전의 작품들에서 보이는 남조선 해방이라는 획일적 주제에서 벗어나 이들 작품들은 남한이 아닌 북한의 인물들이 겪는 분단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혈육의 정을 그리워하는 이산의 아픔을 중심 소재로 하여 남북 분단을 개인적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할 아픔으로 그려내며 통일에 대한 염원을 내포<sup>81)</sup>하고 있다. 그런 아픔이 한 가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분단된 민족의 아픔임을 강조함으

81) 새로운 경향을 보이는 북한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들은 김명익의 「임진강」, 림종상의 「쇠찌르레기」, 주유훈의 「어머니 오시다」, 류도희의 「열쇠」 등이 있다.

로써 이전의 추상적·관념적 작품이 지니지 못하는 현실적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다.<sup>82)</sup> 이런 경향을 보이는 북한소설이 교과서 텍스트로 수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문학』 교과서 편찬자는 문학에 관한 전문 지식과 안목을 바탕으로 현대 소설 작품 선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작품을 선정 수록해야 한다. 우리의 분단 문제를 어떻게 다룬 소설이 교과서에 실리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분단’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므로 교과서 소재 분단 소설의 선정은 중요하다고 계속적으로 언급하였다. 분단소설의 범주에 들어가는 작품들은 분단의 역사와 상황을 잘 형상화하여, 그 속에 살아가는 개인들의 삶의 모습을 진솔하게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일상인의 길들여진 의식과 시선에 균열을 일으켜 현실에 새롭게 눈뜰 수 있도록 하는 작가의 문제의식이 표현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분단소설은 분단의 문제를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분단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역사인식이 전제가 된 작품이 수록되어야 한다. 먼저 그 배경과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물론 현재 『문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많은 분단 소설들은 예전의 반공 이데올로기나 전쟁의 희생물로서 비극적 개인사와 가족사를 보여줌으로써 왜곡된 역사의식에서 탈피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의 분단소설은 분단의 아픔과 극복을 주제로 담고 있는 작품 수가 많아졌지만, 교과서 수록 작품들은 아직도 한국전쟁과 그로 인해 고착화된 분단체제 속에서의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 수가 많다.

또한, 분단의 아픔과 극복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도 분단의 아픔과 극복의 지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의지적 차원에서 국한되거나 문학 상징적 장치

82) 김종희 편, 「최근 북한문학의 경향과 방향성」, 『북한 문학의 이해 2』, 청동거울, 2002, 199면.

를 통해 문학적인 의미에서의 극복이 다루어 실천적인 의미에서의 분단극복을 중심에 두고 있는 작품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남북을 하나의 민족으로 동질 관계에 두고, 분단의 치유와 극복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분단 극복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을 담고 있는 새로운 분단소설의 작품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소설이 아닌 다른 장르 혹은 매체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질성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동질성 회복과 분단 극복을 위한 교육적 효과로 소설을 포함한 문학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Ⅵ. 결론

소설은 논리적인 시선으로 포착할 수 없는 인간의 삶에 대한 진상을 구체적인 인간 행위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삶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소설 교육이 자리 잡고 있는 환경으로서 분단 상황에 주목하여, 분단소설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고등학교 문학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분단 현실에 대한 투명하고 참된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소설교육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론에 해당하는 II장에서는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분단소설을 분석하기에 앞서 분단문학의 개념과 전개양상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분단문학을 분단으로 인한 여러 갈등과 모순을 다룬 주제와 소재의 문학을 가리키는 것으로 분단 극복과 통일 지향 의지를 담고 있는 문학으로 규정하였다.

III장에서는 분단이 초래하는 모순을 극복하고 통일을 대비하는 문학 교육이 되기 위해서 분단의식의 극복을 위한 분단소설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IV장에서는 6차와 7차 교육과정에 의해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분단소설의 현황을 살펴 7차 교육과정 교과서 수록 현황의 발전적 경향과 문제점을 찾아보았다. 또한 교과서 수록 분단소설을 선별한 뒤, 총 23편의 작품을 주제별로 '해방 공간의 개인', '전쟁과 인간 실존의 문제', '전후의 피폐한 실존적 현실', '극단적 이데올로기의 비판', '분단의 아픔과 극복'으로 유형화하였다. 특히 본고의 논의에 해당하는 '분단의 아픔과 극복'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11편의 작품 중 60년대 이후에 발표된 「병신과 머저리」, 「나무들 비탈에 서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 「엄마의 말뚝2」,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어둠의 혼」, 「나무」과 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비 오는 날」을 중심으로 각 작품의 학습목표와 학습활동이 교과서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보았다. 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단편소설마저도 부분적으로만 실려 있어 작품 전체를 감상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둘째, 작품 수록 내용과 학습목표에 적합한 학습활동이 다양하게 제시되지 못하며 무성의하고 애매모호한 해설로 학습자들의 작품 이해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문학 교재의 작품들은 어떤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교과가 아니라 학습자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자료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을 유도하기보다 문학 작품에 대한 분석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넷째, 작가와 작품의 편향성으로 문학 교육의 목표인 '삶의 총체성 이해'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V장에서는 IV장을 토대로 교과서 수록 중단소설의 문제 해결 방향과 중단소설 작품 선정과 교과서 수록 방향을 모색하였다. 먼저 과거에 좋은 작품으로 평가받은 소설이라도 오늘날의 관점에서 재검증 받은 작품들을 엄격히 가려 선정해야 한다. 둘째, 교과서의 내용 구성을 검토한 결과 작품에 대한 해설이 애매모호하고 상투적으로 무성의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작품의 감상과 이해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교과서의 작품해설에 대한 적절한 검증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문학』 교과서에는 북한문학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북한문학이 교과서에 실린다면 북한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북한문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중단 문제를 어떻게 다룬 소설이 교과서에 실리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분단에 대

한 인식이 달라지므로 분단소설의 범주에 들어가는 작품들은 분단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역사인식이 전제로 분단의 역사와 상황을 잘 형상화하여 그 속에 살아가는 개인들의 삶을 모습을 진솔하게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감성적 화해모색이 아닌 남북을 하나의 민족으로 동질 관계에 두고 분단의 치유와 극복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분단 극복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을 담고 있는 새로운 분단소설의 작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여섯째, 교사와 학생이 교과서의 작품 해설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분단에 대한 다양한 문제의식을 지닌 작품들을 선별하여 꼼꼼히 읽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런 작업을 통해 학습자들이 문학작품을 통해 통일문제를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내면화시키고 분단극복과 통일지향의 실천적인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자료>

교육 인적 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 고시 1997-15호,  
2001.

통일부, 「2003년 통일 교육 기본 지침서」, 통일정책실, 2003

김윤식 (외), 『고등학교 문학』, (주)도서출판 디딤돌, 2002

홍신선 (외), 『고등학교 문학』, (주)천재교육, 2002

박경신 (외), 『고등학교 문학』, (주)금성출판사, 2002

우한용 (외), 『고등학교 문학』, (주)두산, 2002

한철우 (외), 『고등학교 문학』, (주)문원각, 2002

한계전 (외), 『고등학교 문학』, (주)블랙박스, 2002

김창원 (외), 『고등학교 문학』, 민중서림, 2002

조남현 (외), 『고등학교 문학』,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2

김병국 (외), 『고등학교 문학』, (주)한국교육미디어, 2002

강황구 (외), 『고등학교 문학』, 상문연구소, 2002

구인환 (외), 『고등학교 문학』, (주)교학사, 2002

김대행 (외), 『고등학교 문학』, (주)교학사, 2002

권영민, 『고등학교 문학』, (주)지학사, 2002

박갑수 (외), 『고등학교 문학』, 지학사, 2002

오세영 (외), 『고등학교 문학』, 대한교과서(주), 2002

최웅 (외), 『고등학교 문학』, 청문각, 2002

김상태 (외), 『고등학교 문학』, 태성출판사, 2002

박호영 (외), 『고등학교 문학』, 형설출판사, 2002

<단행본>

강진호, 『탈분단 시대의 문학논리』, 새미, 2001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01

구인환, 『한국 전후문학 연구』, 삼지원, 1996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3

——, 『한국 현대 문학사 1945-1990』, 민음사, 1994

——, 『한국민족문학사 연구』, 민음사, 1988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김병익, 『파탄의 시대와 구원의 가능성』, 문학사상사, 1986

——, 『현대한국문학의 이론』, 민음사, 1972

김승환, 신범순 공편, 『분단문학비평』, 청하, 1987

김용일, 『한국교육문제연구 2집』, 『푸른나무』, 1989

김윤식, 『우리 소설과의 만남』, 민음사, 1986

——, 『80년대 우리 문학의 이해』, 서울대 출판부, 1989

——, 『운명과 형식』, 솔, 1992

김원일, 『어둠의 혼』, 『제3세대 한국문학 6』, 삼성출판사, 1983

김인환·성민엽·정과리 엮음, 『문학의 새로운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6

김종희 편, 『북한 문학의 이해 2』, 청동거울, 2002

남정현 외, 『소설 속에 갇힌 분단 40년』, 남녘, 1988

백낙청,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까치, 1985

신경득, 『한국 전후소설 연구』, 일지사, 1983

오현봉, 『한국현대문학의 사회학적 시고』, 형설출판사, 1990

유임하, 『분단현실과 서사적 상상력』, 태학사, 1998  
 윤병로, 『한국현대소설의 탐구』, 범우사, 1980  
 임현영, 『분단시대의 분단문학』, 태학사, 1992  
 \_\_\_\_\_, 『문학과 이데올로기』, 실천문화사, 1983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79  
 조건상, 『한국현대 소설가론』, 태학사, 2001  
 조한혜정·이우영 엮음, 『탈분단 시대를 열며』, 삼인, 2000  
 천이두, 「분단시대의 비극과 한국소설」, 『한국문학과恨』, 이우출판사, 1985  
 최일수, 『민족문학신론』, 동선사, 1998

#### <논문 및 연속 간행물>

강용준, 「6월의 수기」, 『한국문학』, 1985. 6  
 구중서, 「통일지향 문학의 여건」, 『실천문학』, 2권, 1981  
 권성임, 「분단소설 연구: 유년기 전쟁체험의 형상화 양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0  
 김경혜, 「황순원 장편에 나타난 인간구원의식에 관한 고찰」, 숙명대 석사논문, 1987  
 김보영, 「박완서 소설연구-주로 그의 현실비판의식을 중심으로」, 명지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김영철, 「통일문학 방법론 서설」, 『우리말글』, 제20집, 2000  
 김지연, 「윤홍길 초기 성장소설 연구」, 충북대 석사논문, 1999  
 김학묵, 「문학교육에서의 분단소설 연구: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단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김학순, 「문학 교과서 소재의 분단소설 고찰」, 충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박미연, 「1950년대 성장소설 연구」, 덕성여대 석사논문, 1994
- 박진우, 「1980년대 분단소설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2002.
- 설진구, 「윤홍길 분단소설 연구: 화자의 서술적 입장과 세계인식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3
- 송병호, 「박완서 단편소설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0
- 심정민, 「분단소설의 변모 양상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1994.
- 안우혜, 「김원일 분단소설과 문학교육」, 홍익대 석사논문, 2002
- 양승은, 「고등학교 소설교육에 관한 연구:195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상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 엄정미, 「분단시대의 소설 교육-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2001.
- 유성희, 「제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의 분석적 연구-현대 문학 영역의 구성 및 내용 체계를 중심으로」, 경기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 유순자, 「6.25전쟁과 이니시에이션 소설연구」, 강원대 석사논문, 1997
- 유임하, 「현대 한국소설의 분단인식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1996
- 유지형, 「분단소설연구: 유년기 전쟁 체험의 형상화 양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논문, 1999
- 이경식, 「박완서 장편소설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1986
- 이정현, 「분단소설 교육론」, 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이종호, 「분단모순 극복을 위한 소설연구: 6.25를 소재로 한 소설을 중심으로」, 청주대 석사논문, 1992.
- 이철호, 「이호철의 1960년대 소설 연구: 작가의 분단의식을 중심으로」,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 이재선, 「한국전쟁과 50년대 소설」, 『현대문학』, 1989, 1
- 전영태, 「6.25와 한국소설의 재발견」, 『한국문학』, 1985, 6

- 정호웅, 「상처의 두 가지 치유 방식-박완서 문학의 6.25체험 수용에 대하여」, 『작가 세계』, 1991, 봄
- 조건상, 「분단인식의 형상화 양상 연구」, 『분단소설연구』, 제9호, 한국현대소설학회, 1998
- 한민수, 「1970년대 분단소설연구: 분단극복의식의 형상화 양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1
- 한승옥, 「한국 전후소설의 현실극복의지-『불꽃』, 『나무들 비탈에 서다』, 『끊어진 다리』를 중심으로」, 숭실어문, 1986
- 홍인철, 「한국현대소설의 이데올로기 수용 양상 연구: 분단문학을 중심으로」,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